

Annual Report

2016

# KBS 시청자상담백서



#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6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29
4. 상담내용 분석	40
5. 정보공개 안내	79
※시청자 권익보호란?	83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86
7. 제작진 답변	88
8.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95
- KBS 민원사무처리규정	100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05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07

#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23 명이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1:1 채팅 상담),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mailto: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인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 2

# 2016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6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476,49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358,095건 75.2%)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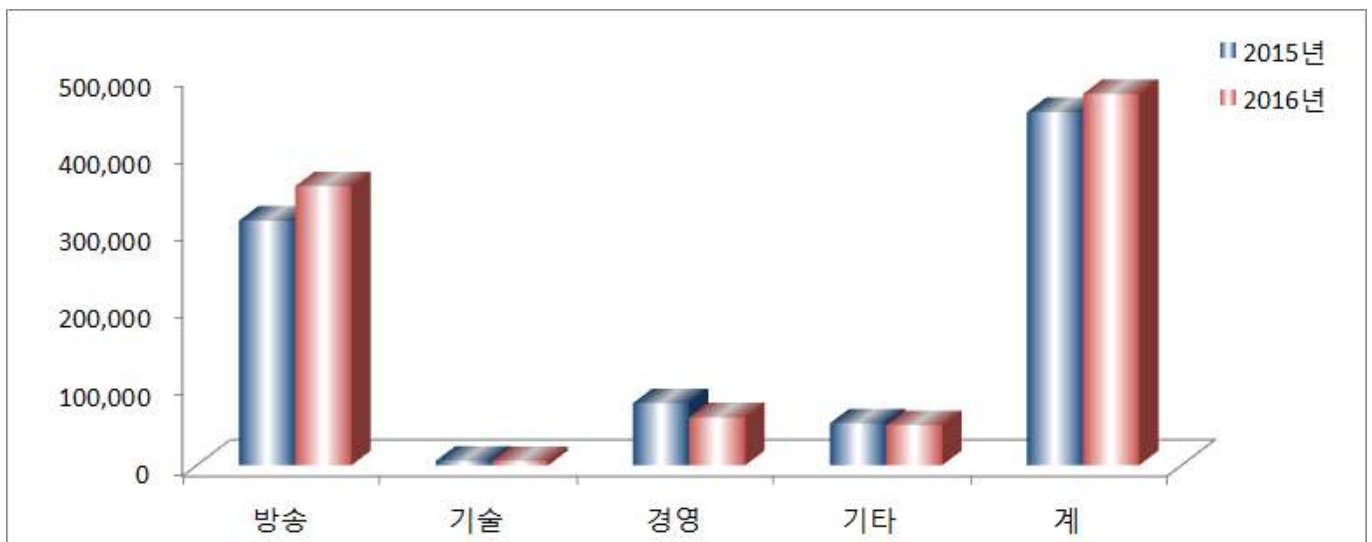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률
2016년	476,493	▲ 23,426	5.17%
2015년	453,067	▼ 13,086	-2.81%
2014년	466,153	▼ 28,976	-5.85%
2013년	495,129	▼ 244,689	-33.07%

## 2 시청자의견 집계

### ■ 2016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32,962	441	6,168	4,370	43,941	
2	26,211	435	5,041	3,936	35,623	
3	31,672	422	5,601	4,271	41,966	
4	29,141	463	5,329	4,325	39,258	
5	26,219	496	5,681	4,525	36,921	
6	28,405	469	4,625	4,147	37,646	
7	29,894	447	4,445	4,062	38,848	
8	28,957	478	4,751	4,344	38,530	
9	30,053	472	4,648	4,227	39,400	
10	29,335	502	4,915	4,110	38,862	
11	32,085	448	4,912	4,511	41,956	
12	33,161	436	5,252	4,693	43,542	
계	건	358,095	5,509	61,368	51,521	476,493
	비율	75.2%	1.2%	12.9%	1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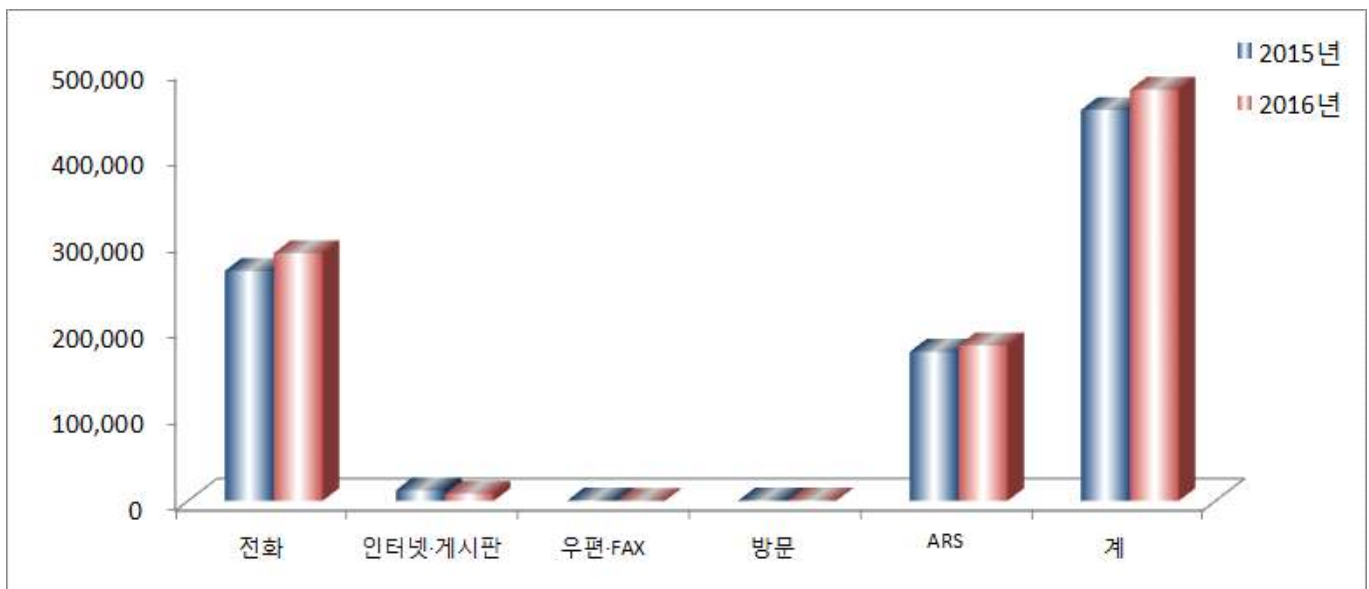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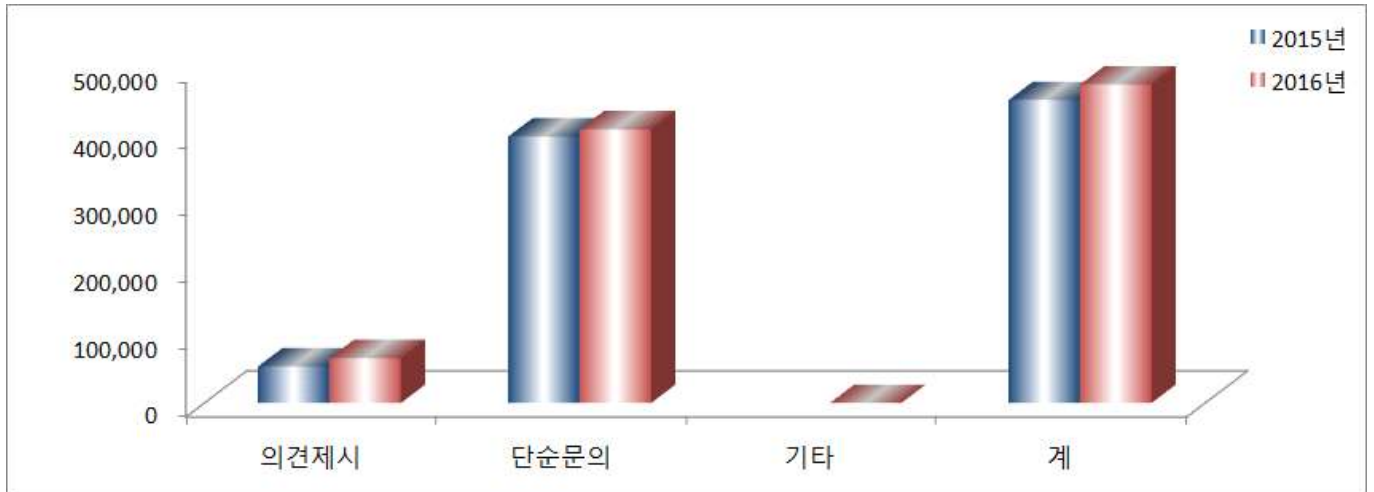
■ 2016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25,199	741	19	31	17,951	43,941	
2	20,343	799	46	35	14,400	35,623	
3	24,009	774	19	44	17,120	41,966	
4	24,965	712	19	48	13,514	39,258	
5	22,410	606	19	47	13,839	36,921	
6	22,218	523	13	53	14,839	37,646	
7	23,594	768	12	27	14,447	38,848	
8	25,456	687	13	43	12,331	38,530	
9	24,071	572	11	33	14,713	39,400	
10	23,814	690	18	46	14,294	38,862	
11	25,256	720	16	37	15,927	41,956	
12	25,689	858	22	38	16,935	43,542	
계	건	287,024	8,450	227	482	180,310	476,493
	비율	60.2%	1.8%	0.0%	0.1%	37.8%	100.0%

[2015년, 2016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5년, 2016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5년, 2016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16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63	12	1	93	22	28	10	-	4	233	
2	193	18	-	60	41	216	8	-	-	536	
3	57	41	41	71	57	369	5	-	-	641	
4	27	19	-	226	63	156	19	-	3	513	
5	99	35	2	69	53	8	50	-	-	316	
6	91	25	4	57	37	13	9	-	1	237	
7	39	28	4	251	156	152	8	-	-	638	
8	625	34	14	58	34	66	14	-	1	846	
9	354	113	-	61	98	29	13	-	-	668	
10	70	25	11	55	41	11	16	-	2	231	
11	115	59	2	83	108	31	15	-	46	459	
12	50	32	-	87	54	134	19	-	--	376	
계	건수	1,783	441	79	1,171	764	1,213	186	-	57	5,694
	비율	31.3%	7.7%	1.4%	20.6%	13.4%	21.3%	3.3%	0.0%	0.0%	1.0%

###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여유만만	조기 퇴직 후 자본금 500만 원으로 파이 굽는 일을 시작해 연 매출 9억 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규철 씨의 성공 비결이 방송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창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40
2월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상처받고 찢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어 많은 공감이다. 그런데 최아란(서이안 분)이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보기 불편하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최아란(서이안 분)이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가위로 훼손하고 오봄(송지은 분)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였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목한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	197
3월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내용이 반복되어 보기 불편하다. 일일연속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 내용이 매우 자극적인 것 같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51
4월	6시 내고향	6시 내고향 6,000회를 맞이하여 귀한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나누어 주는 토종씨앗축제를 진행한다고 방송되었다. 첫날(4.14)은 오후 3시, 6시에 나누어 주고 둘째날(4.15)은 낮 12시, 오후 3시, 6시에 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첫날 씨앗을 받으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부가 완료되어 당황스러웠다.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136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편성으로 「글로벌 24」 등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천상의 약속」,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아쉽다. 본인은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TV를 틀었는데 드라마가 그 시간에 방송되지 않아 당황했다. 변경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3
6월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결승)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전으로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가 중계되었다. 그런데 축구 경기 편성으로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와 「여유만만」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49
7월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 감정을 못 느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장혁 분)가 점점 이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로 즐겨 시청한다.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특별한 사람 이영오(장혁 분)를 통해 감정이 결여된 현시대의 폐부를 찌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좋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중계와 방송 일정으로 조기 종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조기 종영한다니 아쉽다. 처음 제작 예정된 총 16부작을 모두 방송해 주기 바란다.	132
8월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일일드라마로 매일 아침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드라마가 계속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방송되기 바란다.	388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9월 19일 지진 뉴스특보로 드라마가 중단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오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일 내용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드라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67
10월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챙겨 본다. 그런데 이날은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중계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일일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9
11월	도전! 골든벨	100명의 패기 넘치는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천상의 컬렉션」이 2부작으로 편성되어 다음 주까지 결방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은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3
12월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이날은 김빛나(박하나 분)의 거짓말에 최여사(백수련 분)가 학생들 앞에서 오은수(이은영 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또, 김빛나(박하나 분)가 화장실 변기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빠트리며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극적으로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되도록 이러한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19

## 4 월별 Top 5 의견

###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여유만만]	40	조기 퇴직 후 자본금 500만 원으로 파이 굽는 일을 시작해 연 매출 9억 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규철 씨의 성공 비결이 방송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창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어 감사하다.
2TV [KBS 특선 대작 전쟁과 평화]	28	19세기 초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5개의 귀족 가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높은 예술성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자막으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더빙으로 방송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에는 고려해 주기 바란다.
2TV [주말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9	가족의 따뜻함과 엄마의 소중함을 알려주어 주말 저녁 시간대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즐겨 시청한다. 짠한 모녀간의 애증 이야기를 다루어 공감이 될 때가 많다. 그런데 극중에서 임산옥(고두심 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대 의학기술이 좋으니 임산옥(고두심 분)이 병을 이겨내고 잘 지내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면 좋겠다.
1TV [6시 내고향]	7	청청해역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약산면의 바다 국수 꼬시래기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자막에 '전라남도 완도군 해제면'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로 완도군에는 해제면이 없다. 해제면은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곳이다. 행정구역 표기를 정확히 해주기 바란다.
2TV [여유만만]	5	앞날을 대비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찾아가는 곳 점집에서 무속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되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모든 무속인들이 사기를 하는 것처럼 방송되어 아쉬웠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1TV</p> <p>[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p>	<p>197</p>	<p>상처받고 찢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어 많은 공감이 된다. 그런데 최아란(서이안 분)이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보기 불편하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최아란(서이안 분)이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가위로 훼손하고 오봄(송지은 분)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였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목한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p>
<p>1TV</p> <p>[긴급진단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는?]</p>	<p>138</p>	<p>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KBS 뉴스특보」, 「긴급진단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는?」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되었다. 이로 인해 「대하드라마 장영실」과 「설 특집 전국노래자랑 36년 인기상 총집합」이 결방되었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했는데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헬로카봇 3]</p>	<p>23</p>	<p>매주 토요일 새로운 카봇 편을 방송해 주어 아이들이 방송 시간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다른 방송 편성으로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이들이 매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KBS 다큐 1]</p>	<p>13</p>	<p>가난과 노사분쟁으로 절망의 나라였던 스웨덴이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날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든 행복국가 스웨덴 정치의 비결을 알아보았는데 유익했다. 국회의원 특권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봉사를 하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의 여러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달라 놀라웠다.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본받아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p>
<p>1TV</p> <p>[가요무대]</p>	<p>8</p>	<p>가요계의 황금기 레이블의 시대 1930년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기존에는 트로트 가수들만 주로 출연했는데 이날은 국악인들도 출연해 볼거리가 다양하고 흥미로운 무대였다. 남상일의 '처녀총각'과 채수현의 '남대문 타령'은 가요무대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무대였다. 앞으로도 종종 국악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설운도의 '나그네의 설움'과 현철의 '불효자는 읍니다' 등 멋진 공연도 매우 좋았다. 특별한 무대를 선사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p> <p>[일일연속극 우리 집 꼴단지]</p>	351	<p>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내용이 반복되어 보기 불편하다. 일일연속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 내용이 매우 자극적인 것 같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2TV</p> <p>[인공지능의 도전 특별 대국 이세돌 : 알파고 [제1국]]</p>	29	<p>월 100만 번의 대국을 스스로 학습하여 실력을 키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 대 세계정상의 바둑기사 9단 이세돌의 바둑 경기가 중계방송되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해설자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 바둑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바둑의 특성상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설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1TV</p> <p>[KBS 뉴스광장]</p>	19	<p>용인시청에서 직접 건축 허가를 내준 기업 연구 시설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급기야 건축 허가까지 취소하겠다고 나서 그 이유가 적절한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기자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주민 측의 반대로 공사가 취소된 것처럼 보였다. 시청이나 기업의 입장만의 보도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p>
<p>2TV</p> <p>[공사창립 특별기획 이미자 음악회]</p>	18	<p>공사창립 43주년, 데뷔 57주년을 맞이한 이미자의 가족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57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이미자의 히트곡 및 가곡 등을 불렀고, 성악가 고성현과의 듀엣 무대도 선보여 매우 즐거웠다. 재방송을 편성해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p>
<p>2TV</p> <p>[문화빅뱅 더 콘서트]</p>	13	<p>국내·외 음악가들의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술·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품격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무대를 마치고 연주자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3월 17일 KBS 별관 공개홀에서 마지막 무대가 열렸다고 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해 주기 바란다.</p>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6시 내고향]	136	6시 내고향 6,000회를 맞이하여 귀한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나누어 주는 토종씨앗축제를 진행한다고 방송되었다. 첫날(4.14)은 오후 3시, 6시에 나누어 주고 둘째날(4.15)은 낮 12시, 오후 3시, 6시에 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첫날 씨앗을 받으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부가 완료되어 당황스러웠다.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2TV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132	유치원 아동학대와 불량급식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및 비밀 등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고 선생을 하대했다는 내용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현실과는 무관한 가상의 스토리라고 해도 비하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30	매주 월요일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5인이 펼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대결로 '고급정보열전' 코너가 진행된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 여부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날 방송부터는 ARS 투표는 하지 않고 티벳 참여로만 진행된다고 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티벳 이용이 불편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제까지 방식대로 계속 진행해 주기 바란다.
2TV [나를 돌아봐]	20	오늘 방송에서 실제 연인사이인 장동민과 나비가 가상결혼이라는 내용으로 시댁체험을 하는 내용이 첫 방송 되었다. 기존의 출연자들처럼 연예인과 매니저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주제가 아니라 당황스러웠다. 장동민과 나비는 타 방송에서 좋지 않은 발언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돌아봐」프로그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두 사람의 출연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9	13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자되고 100% 사전 제작 드라마로 한중 동시 방영되어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30% 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재미있어 즐겨 시청한다. 특유의 군대식 말투와 송송(송중기, 송혜교)커플, 구원(진구, 김지원)커플의 로맨스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다. 사전 제작된 드라마여서 연장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여 기대가 된다. 군인과 의사의 사랑을 다룬 새로운 소재와 휴머니즘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심을 자극하는 신선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 5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63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편성으로 「글로벌 24」등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천상의 약속」,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아쉽다. 본인은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TV를 틀었는데 드라마가 그 시간에 방송되지 않아 당황했다. 변경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19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음악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요 쇼 프로그램이다. 이날 1위 후보로 AOA와 트와이스가 대결을 펼쳤는데, AOA가 총 6,4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여기서 음반점수가 AOA는 1,600점, 트와이스는 224점으로 집계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R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13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노래와 함께 들려주어 매일 빼놓지 않고 청취했다. 라디오를 청취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는데, 개편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 위주로만 방송되어 아쉽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코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2TV [KBS 뉴스 9]	11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통장에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일부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후에는 정확히 확인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1	매주 월요일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5인이 펼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대결로 '고급정보열전' 코너가 진행된다. 시청자들의 투표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데 언젠가부터 ARS 투표는 하지 않고 티벳 참여로만 진행되어 불편하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는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ARS 투표도 진행해 주기 바란다.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결승)]	49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전으로 아르헨티아 대 칠레 경기가 중계되었다. 그런데 축구 경기 편성으로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와 「여유만만」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한국인의 밥상]	6	햇보리 수확이 한창인 밭에서 먹던 새참과 주전부리 등의 보리 밥상을 만나 보았다. 그런데 고창읍성에 대한 소개 시 방송화면에 '전라남도 고창군'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행정구역에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2TV [개그콘서트]	6	이날 '이럴 줄 알고' 코너에서는 그림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출연자로 김준호와 이수근이 나오면서 그림의 진위를 두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수근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 본인들의 잘못된 점을 개그로 승화시켜 보기 불편했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TV [KBS 스페셜]	4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정치의 현장을 소개하고, 선진 정치를 이룬 요인에 대해 방송되었다. 지난 1월, 2월에 방송된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2부작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의원들의 검소한 삶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다양한 덴마크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치스타일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어 좋았다. 국회의원들의 청렴함과 검소함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진행되는 성역 없는 수사, 투명한 정보 공개,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3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어 매우 유익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TV [월화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4	조용한 섬 섬월도에 과거의 스칼렛 오하라 양백희가 신분 세탁 후 18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드라마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척 상처만 주고 살아온 두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달해 주어 좋다. 특히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력과 스토리가 훌륭해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p>	<p>132</p>	<p>전두엽에 이상이 생겨 감정을 못 느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장혁 분)가 점점 이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로 즐겨 시청한다.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특별한 사람 이영오(장혁 분)를 통해 감정이 결여된 현시대의 폐부를 찌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좋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중계와 방송 일정으로 조기 종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조기 종영한다니 아쉽다. 처음 제작 예정된 총 16부작을 모두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 [열린음악회]</p>	<p>130</p>	<p>직접 현장에서 「열린음악회」를 보고싶어 방청권을 신청해 당첨되었다. KBS홀에서 7월 19일 19시 30분 녹화방송 되는 방청권이었는데, 좌석표 교환은 녹화 당일 오전 11시부터 녹화 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좌석표 교환 전에 방청권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 방청권 보다 많은 좌석표가 배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1TV [정전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p>	<p>103</p>	<p>2016년 7월 27일은 정전 63주년이 되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6.25 참전용사와 U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이다.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UN 6.25 참전 용사들이 평생 가슴에 품어왔던 바람인 한국을 방문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더 뜻깊고 의미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하게 보여주어 좋았다. 특히 전쟁기념관에서 전쟁 당시 21세였던 캐리 장군이 전사한 전우를 기억하는 모습에서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p>
<p>1TV [아침마당]</p>	<p>78</p>	<p>요일별로 특화된 각각의 주제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진행자 이금희는 오랫동안 따뜻한 말투로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그런데 이금희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한다고 해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고생한 이금희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388	일일드라마로 매일 아침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드라마가 계속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방송되기 바란다.
2TV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65	탄탄하고 빠른 전개로 매일매일 방송시간만을 기다리며 챙겨보는 드라마이다. 주인공인 소이현(강지유 분)에 대한 오민석(유강우 분)의 순애보적인 사랑이 가슴 아프고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날 「여름방학 특선 영화 명량」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65	8월 4일 서연희(임채원 분)의 집에서 오춘심(백현주 분)이 꽃수가 새겨진 배넛저고리를 발견하고 정꽃님(나해령 분)이 서연희(임채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며 끝났다. 전날 방송을 보고 다음 내용이 너무 기대되었는데, 이날 축구 중계로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정전 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52	2016년은 정전 63주년으로 6.25전쟁 UN 참전용사들의 한국방문기가 방송된다고 해서 시청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방송이 되어 볼 수 없었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말에 재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25	설동탁(신지훈 분)이 강단이(이시아 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자 강삼월(길은혜 분)이 중간에서 훼방을 놓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다. 그런데 강삼월(길은혜 분)이 강단이(이시아 분)에게 “넌 알 것 없거든?”, “강단이 너 나하고 얘기 좀 해” 등 극중 고모인 강단이(이시아 분)에게 반말을 계속해 듣기 불편했다. 필요한 설정이라도 발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 9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167	9월 19일 지진 뉴스특보로 드라마가 중단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오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일 내용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드라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KBS 뉴스]	88	SNS에 올라온 남녀 사진을 모아 이들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허위 비방한 강남패치, 한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운영자의 집에서 추궁하는 장면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검거를 진행한 것이겠지만, 이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차후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도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70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1박 2일 출연자인 정준영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이날 방송에서 정준영 분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하차시켜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57	히려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지진관련 뉴스특보로 결방되어 매우 아쉽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55	매일매일 빠짐없이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을 즐겨 시청하고 있다. 주인공인 강지유(소이현 분)가 아이의 생사 여부를 알고 다음 이야기가 매우 궁금해 이날 방송을 기다렸는데, 야구 중계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었다. 드라마 시청자를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9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챙겨 본다. 그런데 이날은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중계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일일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14	한 나라의 왕세자 이영과 남장 내시 홍라온의 예측불허 궁중위장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총 18부작으로 너무 짧게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1회부터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우리동네 예체능]	10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재미와 함께 전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탁구, 태권도, 양궁 등 12종목의 스포츠에 도전하며 생활 체육의 감동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시즌 2 제작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며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TV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10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LG 대 넥센의 경기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이전에 보던 다른 경기와는 달리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여 보기 불편했다. 시청자가 보기 편한 각도로 중계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6	최순실이 서울 강남과 강원도 등 국내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건물을 사들인 과정을 설명해 주며 기자가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최태민은 목사가 아니라고 들었다. 정확한 확인 후 호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도전! 골든벨]	63	100명의 패기 넘치는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천상의 컬렉션」이 2부작으로 편성되어 다음 주까지 결방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은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KBS 뉴스 트위터	43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KBS 뉴스 공식 트위터에서 '박근혜가 어제 촛불 집회 이후 청와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 대통령을 호칭 없이 공식적인 트위터에 올려 보기 불편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38	2016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K-CHART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알려주었다. 방송화면에 현재 순위를 알려주고 지난주 순위와 비교하여 하락, 상승을 보여주는데, 3위인 방탄소년단은 ▼2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다른 가수들의 숫자는 정확히 표기되었는데 방탄소년단의 하락된 숫자 2 뒤에 1이 겹쳐 보여 혼동스러웠다.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TV [4시 뉴스집중]	24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광화문에 세운다는 박정희 전신 동상과 관련해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 시점에 맞는 주제를 다루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22	K차트는 디지털 음원, 음반판매, 방송횟수, 시청자 선호도 조사를 집계하여 순위를 정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음반판매에 기존에는 없었던 해외 판매량이 포함되어 순위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기 바란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119	이날은 김빛나(박하나 분)의 거짓말에 최여사(백수련 분)가 학생들 앞에서 오은수(이은영 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또, 김빛나(박하나 분)가 화장실 변기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빠트리며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극적으로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되도록 이러한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6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일별로 특화해 감동과 재미,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엄지인, 윤인구 아나운서가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좋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엄지인 아나운서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고생한 엄지인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순산해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R [KBS 공감토론]	11	탄핵안 표결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고 각 분야별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날은 정치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전 중앙일보 김진 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말해 방송을 듣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며 토론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2TV [개그콘서트]	10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제로 현 시국을 풍자하는 '대통령' 코너가 첫 방송되었다.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100통이 있다, 골품 체조를 10억을 들여 만들었다, 굳이 대면보고가 필요하냐는 등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보기 불편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은 되도록 지양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7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각 지역에서 입상한 288팀을 대상으로 최종 통과한 22팀이 2016 연말결선 대상을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화려하고 신나는 무대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 5 기타 의견

### | 1TV |

프로그램명	내용
[역사저널 그날]	•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시청하기 어려우니 이전 시간대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TV소설 별이되어 빛나리]	• 애잔하고 공감되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국악 한마당]	• 출연자가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의상을 입고 덤블링을 하는 장면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 리우 올림픽 중계로 결방되어 아쉽다.
[미국의 부활]	•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일부 출연자가 말을 많이 해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 이선영 아나운서가 하차한다고 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인공지능의 도전 특별 대국 이세돌 vs 알파고]	• 스튜디오와 현장을 오가며 중계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전국노래자랑]	• 출연자가 가지고 나왔는데, 송해가 통닭을 통째로 관객석에 던지는 모습이 위생상 보기 좋지 않았다.
[시사기획 창]	• 정치자금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방송해 주어 감사하다.
[KBS 스페셜]	• 6.25를 기억할 수 있는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 암 4기 엄마들의 1년을 기록한 영상이 방송되었는데, 긍정적인 모습에 몽클한 마음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생로병사의 비밀]	• 2주 동안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주말 연속극 아이가 다섯]	•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KBS 뉴스 9(스포츠)]	• 경기결과를 다르게 보도했다. 정확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
[아침마당]	• 진행자가 변경되어 아쉽지만, 변경된 엄지인 아나운서도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보기 좋았다. •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영화 곡성에 비유하며 '유체이탈'로 표현했는데, 해당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내 용
[동물의 세계]	• 전일 방송된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중복되는 내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KBS 뉴스 9]	• 지진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 최순실 검찰 출석과 관련해 반복적인 영상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해 주기 바란다.
[가요무대]	•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특집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 십시일반]	• 전화 ARS 기부방법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KBS 뉴스 7]	•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자세히 보도되어 모방할 위험이 있어 보였다. • 자료화면에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 오타 없이 표기해 주기 바란다.
[일일 연속극 별난 가족]	• 화면은 그대로인데 방송도중 드라마와는 무관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노래가 좋아]	• 최근 2주 동안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KBS 트로트 대축제]	• 2016년에는 편성되지 않아 아쉽다. 신년에는 편성해 주기 바란다.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 특위]	• 최순실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중계방송이 중간에 끝나 아쉬웠다.

## | 2TV |

프로그램명	내 용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섭외해 주기 바란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모방우려가 있는 고민자의 사연이 보기 불편했다. 차후 소재 선택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빠 육아 도전 프로그램 취지와는 달리 엄마들이 자주 출연해 보기 불편하다. • 음식 재료인 밀가루를 놀이로 사용해 보기 불편했다. • 하차한 가족들의 근황이 궁금했는데, 방송되어 매우 좋았다.
[주말연속극 부탁해요, 엄마]	•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형제가 서로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다소 자극적이었다.
[월화드라마 무림학교]	• 총 20부작에서 16부작으로 빨리 종영한다는 소식을 접해 아쉽다.

프로그램명	내 용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계방송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li> <li>• 축구 경기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li> </ul>
[위기탈출 넘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폐지되어 아쉽다.</li> </ul>
[1 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도박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 출연이 너무 이른 것 같다.</li> </ul>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li> </ul>
[어서옵S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노홍철 복귀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li> </ul>
[KBS 아침 뉴스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희 캐스터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속이 다 비쳐 보기 불편했다.</li> <li>• 진행자가 터키의 수도를 잘못 언급했다.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li> </ul>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매번 당하기만 하는 드라마 내용이 보기 불편했다. 밝고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li> <li>•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전개되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주인공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li> </ul>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대한민국 대 나 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코어 화면이 잘못 표기되어 보기 불편했다.</li> </ul>
[생방송 아침이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타까운 소식을 다루었는데, 진행자들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표현을 해 보기 불편했다.</li> </ul>
[여기는 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막 고지와는 달리 다른 경기가 중계되어 아쉬웠다.</li> </ul>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김유정은 미성년자인데 키스신이 나와 놀랐다.</li> </ul>
[제보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어 감사하다.</li> </ul>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구 중계로 결방되어 아쉽다.</li> </ul>
[여유만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휴기간에 회를 판매하는 식당을 '떨이 판매'로 비유했는데, 관련 업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되도록 이러한 표현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li> </ul>

## | 1R |

프로그램명	내용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부분조정으로 주말에만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li> </ul>

## | 2R |

프로그램명	내용
[임백천의 라디오 7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 수시조정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대구에서는 청취할 수 없어 아쉽다.</li> <li>•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li> </ul>

## | 2FM |

프로그램명	내용
[박명수의 라디오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슬기 아나운서가 여성의 입장에서만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li> </ul>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특이 하차한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li> </ul>

## | 기타 |

프로그램명	내용
세월호 2차 청문회 중계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내용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li> </ul>
라디오 개편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개편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변경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만 나와 아쉬운 마음이 든다.</li> </ul>

# 3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 1

#### 주요의견 선정 기준

#####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 2

##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

#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

---

KBS가 달라집니다

2016. 10. 21.[금]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0.21.)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이규천, 2690) [작성: (주)케이티스]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6. 10. 20.(목) 06:00 ~ 2016. 10. 21.(금) 06:00
- 상담건수: 1,762건 / 의견 건수: 7 (다수: 3)
- 주요의견: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발언 제언

##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일시 : 2016. 10. 19.(수) 1TV (10:00-11:00)

- 상담의견 : 출연자 발언 제언(2명)

돼지고기를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고기를 고르는 법에 대해 경상대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가 “일반적으로 수입돈육은 장기간 유통되기 때문에 육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지방산화물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방송될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육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본인과 같이 생계형으로 수입육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송에서는 되도록 이러한 발언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 참고: 4p 본문 참조.

※ 1TV사업국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10. 21. 07:15 문자 통보)  
1TV제작투자 담당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10. 21. 07:15 문자 통보)  
1TV제작투자 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10. 21. 07:15 문자 통보).

### III.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76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1)</sup>	계
994	40	-	4	724	1,76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기타	계
823	631	27	-	3	278	1,76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83	1,579	-	1,76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379	41	181	161	1,762

시청자 의견 (7)	문 의
<p><b>【편 성】</b>(1건)                      ○ 「문화빅뱅 더 콘서트」                      - 후속 방송 요청</p> <p><b>【시사교양】</b>(3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발언 제언 (2명)                      ○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                      - 출연자 섭외 제언                      ○ 「인간 탐구 위대한 질문」                      - 방송 호평</p> <p><b>【연예.오락】</b>(1건)                      ○ 「해피 선데이-1박 2일」                      - 출연자 섭외 요청 (2명)</p> <p><b>【드라마】</b>(1건)                      ○ 일일 드라마 「여자의 비밀」                      - 방송 호평</p> <p><b>【기 타】</b>(1건)                      ○ Kong 어플                      - 애플리케이션 제언 (2명)</p>	<p><b>【방 송】</b>                      ○ 「2TV 생생정보」                      - ‘조개창고’ 연락처 문의 195건                      ○ 「6시 내고향」                      - ‘농수산물 구입 정보’ 연락처 문의 49건                      ○ 「아침마당」                      - ‘서울아산병원’ 연락처 문의 25건                      ○ 「생방송아침이 좋다」                      - ‘이유물’ 연락처 문의 22건                      ○ 「KBS 뉴스 9」                      - ‘제보번호’ 문의 13건 외 1,065건</p> <p><b>【기 술】</b>                      ○ 「수신료 및 난시청」문의 31건                      ○ 「수신기술」문의 7건 외 3건</p> <p><b>【경 영】</b>                      ○ 「전화교환」문의 52건                      ○ 「사업 및 행사」문의 9건                      ○ 「프로그램구입」문의 35건                      ○ 「홈페이지」문의 82건 외 3건</p> <p><b>【기 타】</b>                      ○ 한전 문의사항 외 160건</p>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p>후속 방송 요청</p>	<p>○ 「문화빅뱅 더 콘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1. 7.~2016. 4. 6. 1TV 방송. (총 60부작)</li> <li>-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었다. 방송을 보고 있으면 공연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행복했는데,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아쉽다. 음악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 의견제시자 : 익명 (010-5056-****)</p>
[ 시사·교양 ]	
<p>출연자 발언 제언</p>	<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0. 19.(수) 1TV (10:00-11:00)</li> <li>- 돼지고기를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고기를 고르는 법에 대해 경상대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가 “일반적으로 수입돈육은 장기간 유통되기 때문에 육질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지방산화물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방송될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육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본인과 같이 생계형으로 수입육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송에서는 되도록 이러한 발언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 의견제시자 : 김명* (010-8668-****) 외</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부서답변&gt; 방송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코너에서 짚어보고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1TV제작투자 권오주 PD]</li> </ul>

의견	세부내용
<p>출연자 섭외 제언</p>	<p>○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0. 19.(수) 2TV (20:55-22:00)</li> <li>- 연예인의 집을 찾아가 잠들어 있는 물품들을 찾아내 대중과 직접 중고 직거래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름처럼 구석구석 숨은 돈을 찾아낸다는 기획의도가 매우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도박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이 출연하여 보기 불편하다. 되도록 문제가 있는 출연자는 섭외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김윤* (010-4916-****)</p>
<p>방송 호평</p>	<p>○ 「인간 탐구 위대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0. 19.(수) 1TV (23:40-00:30)</li> <li>- 학자와 명사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우리 사회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세상의 모든 답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질문으로 답을 찾는다는 새로운 시각의 방송인 것 같다. 이날은 죽음의 본질과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줄 죽음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새로운 시각의 창조적인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한수* (kk-031**)</p>

의견	세부내용
[ 연예 · 오락 ]	
출연자 섭외 요청	<p>○ 「해피 선데이-1박 2일」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일) (16:50-19:55)</li> <li>-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차태현, 김준호, 김종민, 테프콘, 윤시윤 등 개성 있는 출연자들로 매우 재미있다. 그런데 정준영이 하차한 이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쉽다. 지난 방송 박보검이 출연했을 때 신선하고 색다른 재미를 주어 흥미진진했는데, 출연자로 섭외해 주면 좋을 것 같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도경* (02-600-****) 외</p>
[ 드라마 ]	
방송 호평	<p>○ 일일 드라마 「여자의 비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0. 19.(수) 2TV (19:50-20:30)</li> <li>- 빼앗긴 아이를 되찾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주인공이 강인하게 변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소이현, 최란, 오민석 등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이날 방송 예고에서 강지유(소이현 분)가 유강우(오민석 분)에게 반지와 목걸이를 건내며 “이제 우리는 아무 것도 같이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강지유(소이현 분)와 유강우(오민석 분)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이정* (02-2066-****)</p>

의견	세부내용
[기타]	
<p>애플리케이션 제언</p>	<p>○ Kong 어플 (2명)</p> <p>- 본인은 휴대전화 Ko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청취한다.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시보가 현재시각과 몇 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 시간 차이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의견제시자 : 한중* (010-6208-****) 외</p> <p>※ 참고</p> <p>- &lt;부서답변&gt; 일반 라디오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나 콩 어플로 듣는 경우 어플이다 보니 시보가 차이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작업할 예정임. [1라디오 주조]</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31 건 (방송기술 관련 8p 참고)</p>

### 3. 시청자상담 통계(2016.10.20.~10.21.)

(단위: 건)

####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161			3	164	
보도	151	2		3	156	
스포츠	2				2	
교양	911	1		10	922	
예능	71			9	80	
드라마	24			2	26	
라디오	26			1	27	
인터넷 방송					0	
날씨				2	2	
계	1,346	3	0	30	1,379	

####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31				31	
수신기술	7				7	
주파수	3				3	
디지털전환					0	
DMB					0	
계	41	0	0	0	41	

#### ○ 경영

전화교환	52				52	
사업 및 행사	8			1	9	
견학	2				2	
주차	1				1	
프로그램구입	35				35	
홈페이지	81			1	82	
계	179	0	0	2	181	

#### ○ 기타

기타	152	1		8	161	
계	152	1	0	8	161	

## 4

#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 1TV 「미국의 부활」

-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나홀로 호황인 미국 경제 심층보고 다큐멘터리이다.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 좋을 것 같다. 재방송을 해 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 1TV 「긴급진단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는?」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KBS 뉴스특보」, 「긴급진단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는?」 프로그램이 긴급 편성되었다. 이로 인해 「대하드라마 장영실」과 「설 특집 전국노래자랑 36년 인기상 총집합」이 결방되었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했는데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 1TV 「헬로카봇 3」

- 매주 토요일 새로운 카봇 편을 방송해 주어 아이들이 방송 시간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다른 방송 편성으로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이들이 매우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 1TV 「KBS 다큐 1」

-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스웨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다. 국회의원 특권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봉사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재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 1TV 「문화빅뱅 더 콘서트」

- 국내·외 음악가들의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술·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품격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 무대를 마치고 연주자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3월 17일 KBS 별관 공개홀에서 마지막 무대가 열렸다고 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의학정보와 지식을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2주 동안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다음 주에는 꼭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 1TV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 매일 오전 시간대에 광개토태왕 이야기의 드라마를 방송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원」이 편성되어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1TV 「정전 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 2016년은 정전 63주년으로 6.25전쟁 UN 참전 용사들이 한국방문기가 방송된다고 해서 시청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방송이 되어 볼 수 없었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말에 재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8월 1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

-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낸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최근 방송에서 국악을 접하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악 무대를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중계로 결방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볼 수 있기를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1TV 일일 연속극「별난 가족」**

- 9월 19일 지진 뉴스특보로 드라마가 중단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오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일 내용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드라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방송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지진관련 뉴스특보로 결방되어 매우 아쉽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객석평가단 100명의 선택으로 승자가 가려지는 일반인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결방 없이 매주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100명의 패기 넘치는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천상의 컬렉션」이 2부작으로 편성되어 다음 주까지 결방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은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29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2016 연말결선」**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각 지역에서 입상한 288팀을 대상으로 최종 통과한 22팀이 2016 연말결선 대상을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화려하고 신나는 무대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1TV 「KBS 트로트 대축제」**

- 트로트 장르의 곡을 따로 분리하여 연말에 주최하는 행사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진행되던 「KBS 트로트 대축제」가 2016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들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신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공사창립 특별기획「이미자 음악회」**

- 공사창립 43주년, 데뷔 57주년을 맞이한 이미자의 가족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57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이미자의 히트곡 및 가곡 등을 불렀고, 성악가 고성현과의 듀엣 무대도 선보여 매우 즐거웠다. 재방송을 편성해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 2대에 걸친 네 모녀의 얽히고설킨 악연의 굴레를 그린 복수극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본다. 탄탄한 극본과 빠른 전개로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런데 이날 드라마가 결방되고 「2016 리우 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이 중계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최종예선 편성으로 「글로벌 24」등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천상의 약속」,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아쉽다. 본인은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TV를 틀었는데 드라마가 그 시간에 방송되지 않아 당황했다. 변경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19일 보고서>

○ **2TV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결승)」**

-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전으로 아르헨티나 대 칠레 경기가 중계되었다. 그런데 축구경기 편성으로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와 「여유만만」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28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뷰티풀 마인드」**

-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 감정을 못 느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장혁 분)가 점점 이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로 즐겨 시청한다.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특별한 사람 이영오(장혁 분)를 통해 감정이 결여된 현시대의 폐부를 찌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좋다. 그런데 리우 올림픽 중계와 방송 일정으로 조기 종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조기 종영한다니 아쉽다. 처음 제작 예정된 총 16부작을 모두 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여자의 비밀」**

- 탄탄하고 빠른 전개로 매일매일 방송시간만을 기다리며 챙겨보는 드라마이다. 주인공인 소이현(강지유 분)에 대한 오민석(유강우 분)의 순애보적인 사랑이 가슴 아프고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날 「여름방학 특선 영화 명량」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매일매일 빠짐없이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을 즐겨 시청하고 있다. 주인공인 강지유(소이현 분)가 아이의 생사 여부를 알고 다음 이야기가 매우 궁금해 이날 방송을 기다렸는데, 야구 중계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었다. 드라마 시청자를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매우 좋아하는 드라마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챙겨 본다. 그런데 이날은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중계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일일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아버지의 복수와 빼앗긴 아이를 되찾기 위해 강지유(소이현 분)가 강인하게 변해 가면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일매일 빠짐없이 시청하는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은 2016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중계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쉽다. 일일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2TV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8월 4일 서연희(임채원 분)의 집에서 오춘심(백현주 분)이 꽃수가 새겨진 배냇저고리를 발견하고 정꽃님(나해령 분)이 서연희(임채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며 끝났다. 전날 방송을 보고 다음 내용이 너무 기대되었는데, 이날 축구 중계로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8일 보고서>
- 일일 드라마로 매일 아침마다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드라마가 계속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방송되기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긴장감 있는 극본 전개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챙겨 보는 드라마이다. 117부에서 주인공인 정꽃님(나해령 분)이 친엄마를 만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매우 궁금한데, 최근 올림픽 중계로 자주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결방될 경우에는 미리 자막으로 고지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리우」

- 배트민턴 남자 복식 8강으로 김사랑, 김기정 선수의 경기가 중계되었고 여자 복식 8강 경기도 보여주어 좋았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잠시 후 '배트민턴 남자 복식 8강 이용대·유연성' 출전의 경기가 중계된다고 자막에 나왔는데, 갑자기 육상 경기가 나와 아쉬웠다. 자막에 고지된 대로 우리나라 경기를 중계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8월 17일 보고서>

○ 2TV 「수상한 휴가」

- 출연자들이 직접 나만의 루트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특별판」이 편성되어 결방되었다. 드라마도 좋지만,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편성되어 매우 아쉽다. 다음 주에는 방송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재미와 함께 전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탁구, 태권도, 양궁 등 12종목의 도전하며 생활 체육의 감동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시즌 2 제작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며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0월 6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 한 나라의 왕세자 이영과 남장 내시 홍라운의 예측불허 궁중위장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총 18부작으로 너무 짧게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1회부터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1R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 본인은 1라디오를 주로 청취한다. 특히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을 즐겨 듣는다. 그런데 5월 9일부터 부분조정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만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기존과 동일하게 매일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R 「경제 세미나」

- 한 주간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청취자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삼국지로 본 영웅의 전략- 조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해 기대했는데, 노래만 계속 나와 당황스러웠다. 방송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2R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노래와 함께 들을 수 있어 매일 빼놓지 않고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 중에 임수민 아나운서와 출연자가 "2주 후면 방송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혹시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애청자로 방송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 7080 중장년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요와 팝송 중심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9월 5일 라디오 수시조정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대구에서는 「박지윤의 가요광장」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기존과 동일하게 청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7080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광주 지역에서는 「박지윤의 가요광장」이 나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임백천의 라디오 7080」을 청취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23일 보고서>

○ 세월호 2차 청문회 중계 요청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부터 이를 동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은 세월호가 어떻게 도입되고 구조변경 되었는지, 운항 과정상 문제는 없었는지, 침몰 뒤 선체 관리와 인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KBS에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 2. 제작 요청 |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1983년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의 맥을 이은 후속 방송인 사람 찾기 프로그램이다. 헤어진 가족과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해외 입양인들, 평생의 은인, 전우 등 다양한 사연을 다루어 즐겨 시청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농촌드라마 오! 할매」

-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산 너머 남촌에는'을 잇는 농촌드라마로 어느새 노인들만 남게 된 농촌을 배경으로 할머니들이 갑자기 나타난 아기를 통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어 즐겨 시청했다. 온 가족이 함께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후속 농촌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비염이란 비루(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비염은 여러 가지 원인 및 병태 생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1TV 「TV 회고록 올림」

- 각자의 분야에서 일생을 바치며 묵묵히 일가를 이룬 어른들의 담담한 이야기와 조언을 통해 현재를 되새기고 미래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나간 세월을 살아온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대하드라마「장영실」

- 과학드라마라는 장르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도 유익해 즐겨 시청했다. 매년 다양한 사극을 통해 훌륭한 명품 드라마를 많이 선보여 새로운 후속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될지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그런데 장영실 이후 대하드라마가 방송되지 않아 아쉽다. 기존과는 또 다른 형식의 사극이길 바라며 후속 드라마가 빨리 편성되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2016년 상반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로 지구촌 곳곳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국은 고학력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만 그쳐 보기 불편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추가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함으로써 높아지는 삶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은 많으나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계단을 오르면 건강이 올라갑니다」

- 전국에 불고 있는 계단 오르기 열풍에 따른 변화된 모습의 계단 환경과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알아보는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은 건 익히 알고 있지만 무조건 따라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주의사항도 꼭 언급해 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주부들의 지갑을 노리는 유형별 사기 범죄에 대해 방송되었다. 본인도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다행히 범인이 빨리 잡혀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아직도 당황스럽다.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방송에서 피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주 소개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TV 「청춘FC 형그리 일레븐」

- 냉혹한 현실에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20대 청춘들의 희망찬 도전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보며 축구의 매력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전국 방방 곳곳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참여해 사람 사는 이야기와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업체험을 하며 벌어진 일당은 성금으로 기부해 나눔의 소중함까지 깨우쳐줘 당시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해주었던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

-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2TV에서 진행했던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를 즐겨 시청했었다. 특히 '위험한 초대' 코너는 초대된 여자 게스트, 유재석, 강병규, 신정환, 이혁재 등과 함께 수중 토크쇼를 진행해 흥미진진했었다. 해피투게더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위험한 초대와 같은 코너를 개설해 주기 바란다. <12월 7일 보고서>

○ 2R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노래와 함께 들려주어 매일 빼놓지 않고 청취했다. 라디오를 청취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는데, 개편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 위주로만 방송되어 아쉽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코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노래와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했다. 그런데 최근 라디오 개편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는데 젊은 사람 위주의 방송이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프로그램 제작요청

- 태풍 차바가 강타한 울산과 부산, 제주 등 지역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태풍 차바로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생방송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 3. 드라마 |

#### ○ 1TV 일일연속극「우리 집 꼴단지」

- 상처받고 찢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어 많은 공감이 된다. 그런데 최아란(서이안 분)이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보기 불편하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최아란(서이안 분)이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가위로 훼손하고 오봄(송지은 분)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행동을 하였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목한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의 극중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보기 불편했다. 이날 최아란(서이안 분)은 안길수(김유석 분)의 고백을 막기 위해 임신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임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어가는 설정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또, 여주인공의 경우 매번 주위 사람들에게 당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내용이 반복되어 보기 불편하다. 일일연속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 내용이 매우 자극적인 것 같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로를 속이고 괴롭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보기 불편하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목한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 1TV 일일연속극「별난 가족」

- 설동탁(신지훈 분)이 강단이(이시아 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자 강삼월(길은혜 분)이 중간에서 훼방을 놓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다. 그런데 강삼월(길은혜 분)이 강단이(이시아 분)에게 “넌 알 것 없거든?”, “강단이 너 나하고 얘기 좀 해” 등 극중 고모인 강단이(이시아 분)에게 반말을 계속해 듣기 불편했다. 필요한 설정이라도 발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꿈과 사랑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 설동탁(신지훈)과 강단이(이시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윤재(김진우 분)가 설동탁에게 “매제, 대체 어찌려고 그래요?”라고 말했다. 구윤재(김진우 분)에게 설동탁(신지훈)은 설혜리(박연수 분)의 오빠로 ‘형님’으로 불러야 맞는 표현이다. 호칭에 신경 써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2일 보고서>
- 이날 방송에서 구경철(이주현 분)이 설공주(서유정 분)와 함께 살기위해 무작정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현재 구경철의 전 부인인 공주엄마가 구경철(이주현 분)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전 부인과 전 남편, 그리고 새로 결혼할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되도록 지양해 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빛나라 은수」

- 김빛나(박하나)가 친구들과 동급생 정아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다. 생일인 친구를 축하한다며 밀가루를 머리 위에 싣우고 케익을 얼굴에 문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모방할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극에 꼭 필요한 내용이더라도 되도록 이러한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이날은 김빛나(박하나 분)의 거짓말에 최여사(백수련 분)가 학생들 앞에서 오은수(이은영 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또, 김빛나(박하나 분)가 화장실 변기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빠트리며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극적으로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되도록 이러한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부탁해요, 엄마」

- 가족의 따뜻함과 엄마의 소중함을 알려주어 주말 저녁 시간대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즐겨 시청한다. 짝한 모녀간의 애증 이야기를 다루어 공감이 될 때가 많다. 그런데 극중에서 임산옥(고두심 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대 의학기술이 좋으니 임산옥(고두심 분)이 병을 이겨내고 잘 지내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면 좋겠다. <1월 15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 조들호」

- 유치원 아동학대와 불량급식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및 비밀 등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고 선생을 하대했다는 내용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현실과는 무관한 가상의 이야기라고 해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2TV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빼앗은 여자와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자녀 세대의 꿈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다룬 드라마이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은 매번 당하기만 하는 드라마 내용이 보기 불편하다. 밝고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23일 보고서>
- 한국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과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그 시대를 겪지 않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전쟁의 참화를 공감할 수 있어 좋다. 이날 민혜주(정이연 분)가 정꽃님(나해령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곤경에 처했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전개되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정꽃님(나해령 분)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8월 12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고혈압, 당뇨, 비만에 좋은 뿌리채소의 효능과 맛있게 요리하는 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가 말을 많이하여 요리연구가의 말을 잘 알아듣기 어렵다. 또, 방송 내내 먹는 소리가 들려 듣기 불편했다. 출연자들에게 주의시켜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건강, 음식, 생활 과학, 실생활 경제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이선영, 한상권 아나운서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선영 아나운서가 하차한다고 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하고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7월 4일 보고서>

#### ○ 1TV 「국악 한마당」

-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창작 판소리 슈퍼덕 씨름대회 출전기를 작창·사설 김명자가 무대를 꾸몄다. 다양한 국적의 여자들이 씨름대회를 벌이는 내용이었는데, 출연자가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트렁크를 입고 덤블링을 하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판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겠지만, 차후에는 충분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월 16일 보고서>

#### ○ 1TV 「아침마당」

- 생생토크 당신의 선택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진심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노유민이 자신의 아내를 계속적으로 누나로 호칭하여 듣기 불편했다. 출연자 발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월 29일 보고서>
- 매주 월요일에는 고급정보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가 '반려견 교통사고, 얼마까지 배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런데 한문철이 강아지 아빠, 강아지 엄마라고 계속 호칭했는데,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출연자에게 주의시켜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요일별로 특화된 각각의 주제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진행자 이금희는 오랫동안 따뜻한 말투로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그런데 이금희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한다고 해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고생한 이금희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방송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이웃의 다양한 이야기를 요일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진행자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금희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그렇지만 새로 변경된 엄지인 아나운서도 편안하고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한다. <7월 5일 보고서>
- 매주 월요일에는 각 전문가들이 출연해 '고급정보열전'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날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는 '해운대 교통사고, 창과 방패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런데 뇌전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뇌전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체이탈이다"라며 말하며 영화 곡성과 비유해 보기 불편했다.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8월 11일 보고서>
-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일별로 특화해 감동과 재미,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엄지인, 윤인구 아나운서가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좋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엄지인 아나운서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고생한 엄지인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순산해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2월 1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의 각박한 삶에 위안을 주는 동시에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문화에 접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김재원 아나운서와 김솔희 아나운서가 출연하지 않아 프로그램 하차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연예인 아빠가 엄마가 없는 48시간 육아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본 취지와는 달리 엄마들이 자주 출연하여 보기 불편하다. 엄마들의 출연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여러 가수들이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45대 전설 송대관 편에 뮤지컬 배우 차자연이 출연해 '네박자'를 열창했었는데 노메이크업을 하고 맨발로 무대에 올라 매우 인상 깊었다. 감동적인 무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섭외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TV 「인공지능의 도전 특별대국 이세돌 : 알파고[제1국]」

- 월 100만 번의 대국을 스스로 학습하여 실력을 키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 대 세계정상의 바둑기사 9단 이세돌의 바둑경기가 중계방송되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해설자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 바둑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바둑의 특성상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설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나를 돌아봐」

- 오늘 방송에서 실제 연인사이인 장동민과 나비가 가상결혼이라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내용이 첫 방송 되었다. 기존의 출연자들처럼 연예인과 매니저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주제가 아니라 당황스러웠다. 장동민과 나비는 타 방송에서 좋지 않은 발언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돌아봐」프로그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두 사람의 출연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라운드에 배우 인교진과 2라운드에 개그맨 이수근이 시청자 100명과 대결을 펼쳤다. 이수근의 경우 자숙기간 에피소드와 새 방송에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 진솔함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불법 도박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의 출연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연자 선정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2TV 「어서옵SHOW」

- 운동인, 예술인, 과학자 등 각계각층 스타들의 재능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스타 재능기부 홈쇼 핑 프로그램이 첫 방송되었다. 재능을 기부하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방송취지가 신선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홍철이 진행자로 출연하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출연하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2TV 「개그콘서트」

- 이날 '이럴 줄 알고' 코너에서는 그림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게스트로 김준호와 이수근이 나오면서 그림의 진위를 두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수근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 본인들의 잘못된 점을 개그로 승화시켜 보기 불편했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코너에서 노래방 10대 소녀 암매장에 대한 살인사건을 다루었는데 자료화면이 끝난 후 이지연 아나운서가 웃으며 "최재황 경사의 늘어나는 연기력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해 보기 불편했다. 또, 긴급취재 코너에서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 5중 추돌사고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김지윤 아나운서가 방송말미에 "운전자는 평소처럼 졸음운전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라고 말해 놀랐다. 두 사건 모두 안타까운 사건을 다룬 만큼, 진행자는 상황에 맞는 진지한 태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내 몸의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에 대해 방송되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각종 생활 습관병 주범인데, 이와 관련해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그런데 출연자인 이다도시가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출연해 보기 불편했다. 방송 시간과 시청 연령대를 고려하여 출연자 의상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강하고 알뜰하게 외식하는 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 박태순 음식 칼럼니스트가 싱싱한 회를 먹는 방법에 대해 식당이 쉬는 연휴에는 활어를 장기간 살려둘 수 없어 재고 소진을 위해 2~3일 전에는 새로 활어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횡감만 판매한다고 했다. 또, 이를 시장에서 떨어 판매로 비유했다. 방송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 관련 업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되도록 지양해 주기 바란다. <12월 2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1박 2일 출연자인 정준영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이날 방송에서 정준영 분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하차시켜 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정국을 전망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내용 중 백운기 진행자의 "검찰이 여론 눈치를 너무 많이 본 측면은 없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앙일보 김진 논술 위원이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사리분별이 원래 약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순실한테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순수했던 것이 잘못이고, 순진했던 것이..." 등 발언했는데, 대통령을 두둔하는 편파적인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출연자가 중립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섭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탄핵안 표결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놓고 각 분야별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날은 정치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전 중앙일보 김진 위원이 격양된 목소리로 논리적이 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말해 방송을 듣기 불편했다. 토론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며 토론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2월 14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매주 화요일에는 시청자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둘 다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슬기 아나운서가 “남자가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해서 여자가 해준 거잖아요. 결혼기념일은 여자가 선물 받는 날이에요.”라고 말했다. 여성의 입장에서만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 이러한 발언은 주의시켜 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2FM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

- 젊은 청취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과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매일 다른 출연자들이 나와 재미있는 소재로 방송해 주어 매우 즐거웠다. 그런데 10월 2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진행자 이특이 하차한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고생한 이특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0월 4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한민족 고유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얼마 전 라디오 부분 개편으로 진행자가 이규창으로 변경되었는데, 지루한 느낌이 든다. 이전 진행자는 재미있고 유쾌하게 진행해 주어 좋았다. 이전 진행자로 교체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5. 공정성

○ **1TV 「아침마당」**

-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전국 이야기 대회 ‘내 말 좀 들어봐’가 방송된다. 시청자들이 직접 ARS로 투표해 1등을 선정하여 의미 있는 방송인 것 같다. 그런데 하나의 전화번호로 여러 번 투표가 가능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공정하게 1인당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 방식을 변경해 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용인시청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내준 기업 연구 시설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급기야 건축허가까지 취소하겠다고 나서 그 이유가 적절한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기자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주민 측의 반대로 공사가 취소된 것처럼 보였다. 시청이나 기업 입장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 2TV 「여유만만」

- 앞날을 대비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찾아가는 곳 점집에서 무속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되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모든 무속인들이 사기를 하는 것처럼 방송되어 아쉬웠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드라마 속 최악의 시어머니 BEST 5'를 주제로 주부 100인에게 물어본 속마음 랭킹쇼가 진행되었다. 본인은 아들내외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부각된 내용이 방송에 나와 보기 불편했다. 사이 좋게 지내는 고부 사이도 많은 만큼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새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행위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쌍방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보복운전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만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심층적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 2TV 「1 대 100」

- 1 대 100 도전자로 황정민 아나운서가 출연했다. "우중이가 자기 집의 이것을 보고 있다. 이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잘못 선택해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혼자서만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 100인의 도전자들과 함께 도전하는 만큼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보기 불편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6. 사실성

### ○ 1TV 「6시 내고향」

- 청청해역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약산면의 바다 국수 꼬시래기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자막에 '전라남도 완도군 해제면'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로 완도군에는 해제면이 없다. 해제면은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곳이다. 행정구역 표기를 정확히 해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전주의 이원준 리포터가 전라북도 익산의 메기 양식장에서 천년초를 넣은 사료를 먹여 키우는 메기들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시에는 남포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방송 자막에 잘못 표기되었다. 정확한 행정구역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9」

- 국내에서 반인륜적인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친어머니가 세 살 난 딸을 장기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9시 뉴스를 시청하던 중 하단에 '일본서도 3살 여아 학대 사망 충격' 자막을 확인했다. '여아'를 '여야'로 잘못 표기하였다. 오류 없이 자막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최순실이 서울 강남과 강원도 등 국내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건물을 사들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기자가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최태민은 목사가 아니라고 들었다. 정확한 확인 후 호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0월 28일 보고서>

○ **1TV 신년 특별기획「미국의 부활」**

-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국 경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방송 내용 중 시추기에 대한 가격이 약 80만 달러로 약 100억 원으로 표기되었는데, 80만 달러는 약 10억 원이다. 자막을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처음으로 나온 출연자가 자기소개를 할 때 자막에 '서울광역시 송파구'로 소재지가 나왔다. 서울특별시가 정확한 행정구역으로 오류 없이 표기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본인은 주가지수에 관심이 많은데 9시 뉴스를 시청하던 중 하단에 코스피 지수 관련 자막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16.23 포인트 하락했는데, 자막에는 6.59 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모르면 당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유형별 대처요령이 방송되었다. 실제사례와 보험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그런데 자료화면에 '보험 사기죄 신설 10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10년 이하 징역이 맞다. 정확한 내용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밭에서 캔 보약이라 불리는 가을 무에 대해 방송되었다. 가을 무의 영양과 추천 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왼쪽 상단 자막에 '가을 무'가 아닌 '기을 무'로 보였다.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주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뉴스광장 영상'에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길상사를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영상에 마음이 차분해 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길상사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절인데, 자료화면에는 '서울시 성동구'로 표기되었다.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햇보리 수확이 한창인 밭에서 먹던 새참과 주전부리 등의 보리 밥상을 만나 보았다. 그런데 고창읍성에 대한 소개 시 방송화면에 '전라남도 고창군'으로 잘못 표기되었다. 행정구역에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故 김광석 20주기 특집으로 후배 가수들을 통해 훌륭한 무대로 꾸며져 보기 좋았다. 이날 세 번째 순서로 슈퍼주니어 려욱이 무대에 올라 '나의 노래'를 열창했다. 화려한 편곡으로 마치 공연장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매우 좋았다. 그런데 몬스타 엑스 주현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 자막에 '든든한 지원군 몬스타 엑스의 주원'으로 이름이 잘못 표기되었다.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 2016 삼일절 특집으로 슬라이딩 역사 퀴즈 쇼가 진행되었다. 이에 판소리 다섯마당 중 우리나라 배경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몽룡과 춘향이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춘향가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자막에 '전라남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러브 스토리'로 표기되었다. 남원은 전라북도가 정확한 행정구역으로 오류 없이 표기해 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가격경쟁 맛대맛 코너에서 짜장면 가격이 1,500원인 중화요리집이 소개되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맛도 좋은 것 같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방송에 소개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인데 인터뷰 자막에는 모두 대구광역시 서구로 표기되어 혼동스러웠다. 오류 없이 자막 표기해 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리얼 가격의 왕' 코너에서 고등어 무한리필 백반 4,500원 식당이 소개되었다. 국내산 고등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그런데 방송 도중 왼쪽 상단에 가격 4,5000원으로 잘못 나왔다. 시청자들이 혼동 없도록 정확한 가격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음악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요 쇼 프로그램이다. 이날 1위 후보로 AOA와 트와이스가 대결을 펼쳤는데, AOA가 총 6,4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여기서 음반점수가 AOA는 1,600점, 트와이스는 224점으로 집계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대한민국 대 나이지리아」

-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로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경기가 생중계되었다. 0대 0의 팽팽한 경기가 후반 40분대까지 이어졌는데 후반 42분경, 최규백의 결승골로 1대 0으로 이겼다. 그런데 최규백이 결승골을 넣은 후 스코어 화면에 '대한민국 0 : 1 나이지리아'로 잘못 표기되어 보기 불편했다.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대상포진, 백신이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되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휘재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놔주나요?"라고 질문했는데 전문가가 "그렇죠"라고 말하며 자막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예방접종무료'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문의해보니 대상포진은 현재 무료접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29일 보고서>

○ 1R 「공부가 재미있다」

- 매주 목요일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교실 안 학교 이야기' 코너가 진행된다. 부모들이 잘 모르는 교실 현장의 모습과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이날 방송 내용이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방송순서안내

- 「한국인의 밥상」을 시청하며 화면 하단에 '방송순서안내' 자막을 확인했다. 종영된 「가족을 지켜라」가 다음 순서로 방송된다고 자막으로 나와 의아했다.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순서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7. 시청자 서비스 |

○ 2TV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 이날 이나연(이유리 분)이 장세진(박하나 분)에게 친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쪽지를 건넸다. 받은 쪽지를 장세진(박하나 분)이 차 안에서 보는데 이기만 회장 휴대번호가 화면에 나왔다. 그런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어떤 사람이 받았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니 방송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KBS 다큐 1」

- 가난과 노사분쟁으로 절망의 나라였던 스웨덴이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날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든 행복국가 스웨덴 정치의 비결을 알아보았는데 유익했다. 국회의원 특권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봉사를 하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인들의 여러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달라 놀라웠다.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본받아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2월 1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암에 대한 진실들과 의사들의 속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들 정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미처 묻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와야 해 힘든 점이 많은데 궁금한 점을 알려주어 좋았다. 또,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은 매우 유익했다. 특히 진행자인 이선영, 한상권 아나운서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방송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어 감사하다. <2월 1일 보고서>
-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은 '갱년기를 극복하고 호르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호르몬을 관리하면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얼마 전 박주아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변경되었는데, 편안하고 밝은 음성으로 진행해 주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항상 방송을 위해 힘쓰는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우리 집 끝단지」

- 상처받은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어 공감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매번 극중에서 배우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많아 보기 불편했다. 최근 들어 등장인물들이 악한 모습을 버리고 따뜻한 내용으로 바뀌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일 보고서>

○ 1TV 「KBS 글로벌 다큐멘터리」

- '먹느냐, 먹히느냐'를 두고 투쟁하는 동물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찰나의 순간을 최고의 영상으로 촬영하여 방송되었다. 이날은 '바다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흰수염 고래, 상어, 바다사자, 돌고래 등 바다의 포식자와 바다에서 먹이를 찾는 군함새, 알바트로스 등이 망망대해에서 어떤 전략으로 사냥을 하는지 볼 수 있었다. 이제껏 보기 어려웠던 차원 높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는 재미를 선사해 주었다. 특히 실감 나는 영상미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내레이션은 매우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도 좋은 교육적인 내용으로 방송해 주어 감사하다. <2월 2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가요계의 황금기 레이블의 시대 1930년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기존에는 트로트 가수들만 주로 출연했는데 이날은 국악인들도 출연해 볼거리가 다양하고 흥미로운 무대였다. 남상일의 '처녀총각'과 채수현의 '남대문 타령'은 가요무대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무대였다. 앞으로도 종종 국악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설운도의 '나그네의 설움'과 현철의 '불효자는 읍니다' 등 멋진 공연도 매우 좋았다. 특별한 무대를 선사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3일 보고서>

- 한국방송공사 43주년을 기념하여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매월 말일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 있어 더 좋은 시간이다. 이날은 손녀가 자신을 키워 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가요 무대에 사연을 신청한 영상이 나왔는데 뭉클하고 감동을 주었다. 특히 방송 도입부에 1985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동건 아나운서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와 감회가 새로웠다. 항상 매끄럽고 차분한 진행을 해 준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수고의 말을 전하고 싶고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하다. <3월 2일 보고서>

- 늦가을을 노래하는 만추기획 '사인사색 四人四色'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현미, 혜은이, 정훈희, 박재란 등 4명의 가수들이 출연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각자의 히트곡으로 무대를 열었고, 서로의 히트곡을 나누어 불렀는데 매우 좋았다. 특히 정훈희, 박재란은 오랜만에 방송에서 보게 되어 더욱 감동적이었다. 반가운 가수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1월 16일 보고서>

○ 1TV TV소설「별이 되어 빛나리」

- 1960년대를 배경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 후 해방촌에 살게 된 주인공 조봉희가 거친 삶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끈기있게 일어서는 주인공을 통해 어린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어 좋다. 흥미진진한 전개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2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뉴스특보가 편성되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보도해 주어 유익했다. 특히 전 국정원 1차장 남주홍이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해 주어 좋았다. 특보를 편성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 설 대목을 맞아 차례 음식과 품격 있는 선물로 떡을 찾는 소비자가 더 늘고 있다. 이날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더 건강하다고 믿음을 주는 떡이 과연 믿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인지 방송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떡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어 매우 좋았다. 시청자들의 공감과 신뢰를 주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1일 보고서>

-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방송되었다. 많은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에 포함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설사의 횡포에 대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방송을 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25일 보고서>

○ 1TV 설 기획「콘서트 7080」

- 평소에 좀처럼 듣기 어려운 1970, 80년대의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은 설 기획으로 방송시간이 길게 편성되어 좋았다. 크라잉 넛, 헤은이, 이상우, 나라, 채은옥, 박상민 등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출연하여 신나는 무대를 꾸며주어 즐거웠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여성 5명을 초대해 북한의 설 명절 풍경과 탈북 사연, 과정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과 북에 살면서 느꼈던 설 명절 풍경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이 흥미로웠다. 탈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험난했던 탈북 과정은 가슴이 아팠다. 명절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2월 12일 보고서>

- 나이 들어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본인과 같은 고령층이 공감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임채무, 조영남, 김성환, 사미자 등 나이가 있는 출연자들이 나와 재미를 더해 주었다. 주제에 맞게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사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21일 보고서>

○ 1TV 「인공지능의 도전 특별대국 이세돌 vs 알파고」

- 월 100만 번의 대국을 스스로 학습하여 실력을 키운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 대 바둑기사 9단 이세돌의 4번째 경기가 중계되었다. 현재까지 4번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먼저 3승을 거뒀지만, 이세돌은 이날 첫 승리로 인간 바둑 기사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다. 특히 해설자의 간결하고 정확한 해설은 바둑을 잘 모르는 시청자도 이해하기 쉬워 좋았다. KBS 스튜디오와 현장을 오가며 중계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다큐 공감」

- 미국 법률에 관한 정보서비스 '피스컬 노트'를 미국에서 창업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청년 CEO 황태일의 성공 기를 담았다. 미국 현지에서 주인공과 관련된 장소, 관계된 사람 등 23세 한국 청년의 성공 원동력이 된 다양한 요인들을 세심하게 취재하여 성공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어 설득력이 있었다. 세계 경제 중심지에서 당당히 주목을 받는 한국 청년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청년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에게 익숙한 아역배우들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출연한 아역배우들이 또래 학생의 모습으로 퀴즈를 푸는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가 매끄럽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더 좋았다.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17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희귀소아암인 횡문 근육종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다섯 살 키라와 엄마 아나스타시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종양을 발견하고, 러시아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이 된 가족으로 다섯 살 아이의 힘겨운 암투병기와 엄마의 경제적 어려움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주었다. 가족을 떠난 아빠를 대신해 혼자 병원비와 간호, 정신적 고통을 도맡아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엄마의 강한 모성애가 인상 깊었고 마음이 아팠다.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4월 7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스페셜」

- 가수의 꿈을 접고 다양한 전통 과자를 만들어 장터를 주름잡으며 온가족 가업을 일군 젊은 상인 강성구의 삶을 다루었다. 재능을 인정받던 가수 지망생에서 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골 장터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까다로운 손님들까지 웃음으로 대하며 자칭 '전국 오일장의 과자매출 1위'라는 성취를 이루어 내기까지 혼신의 힘과 지혜를 다하는 모습이 보는 내내 흐뭇했다. 희망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대해 사용 실태를 분석해보고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방송되어 좋았다. 정치자금 사용내역 자료 분석 결과와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이 가는 지출에 대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해명을 들어보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19대 국회 마무리 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기에 정치 개혁에 대한 주제가 의미 있었다. 몇 년간의 방대한 정치자금 자료를 분석하고 방송한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5월 9일 보고서>

○ 1TV 「동행」

- 6년 전 아들이 이혼한 이후 두 손주를 맡아 돌보는 할머니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전했다. 월 50여만 원 수입에 들판의 숙을 채취해 시장에 내다 팔거나 파지와 불법전단지를 주워 생계에 보태고, 내년까지는 전셋집을 비워야하는 어려움이 방송을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또, 한글을 몰라 알림장을 읽지 못해 손주들의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상황은 가슴이 아팠다. 그렇지만,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을 젖게 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방송해 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서 깊은 국내 암자들을 항공 순례하면서 '하늘에서 본 암자'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남해의 일렁임으로부터 내륙을 거쳐 설악의 능선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일부가 된 천년 고찰을 찾아가는 사유의 여정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암자에 은거하는 노승의 담담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의 여백을 채워가는 동행이 매우 아름다웠다. 방송을 보며 한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내레이션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아름다운 절경과 우리 국토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5월 16일 보고서>
-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꿈꾸는 덴마크 정치의 현장을 소개하고, 선진정치를 이룬 요인에 대해 방송되었다. 지난 1월, 2월에 방송된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2부작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의원들의 검소한 삶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다양한 덴마크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치스타일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어 좋았다. 국회의원들의 청렴함과 검소함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진행되는 성역 없는 수사, 투명한 정보 공개,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3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어 매우 유익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6월 13일 보고서>
- 한국전쟁에 참여한 제임스 밴플리트 부자와 월튼 워커 부자 등 군인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장군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 장군의 아들은 142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실종, 부상을 당했다고 해 놀라웠다. 아직 남과 북으로 갈린 분단의 현실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때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분들의 노고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6.25를 기억할 수 있는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6월 29일 보고서>
- '아름다운 동행'에서 만난 암 4기 젊은 엄마들의 1년을 기록하여 방송되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이 어느 날 덜컥 암 4기 진단을 받아 아슬아슬한 생과 사의 경계를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긍정적인 엄마들의 모습에 몽클한 마음이 들었다. 죽음은 괴롭고 두려운 것이 아닌 삶의 일부라는 깨달음을 전해 주어 좋았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2월 27일 보고서>

○ 1TV 「6.25 특집다큐 피아노」

-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 피난지에서 열린 어린이 콩쿠르에서 시작된 피아니스트 3명의 인연과 성장기를 담아내었다. 전쟁을 겪은 피아니스트들의 시선으로 6.25 전쟁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전쟁의 참혹함과 이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 주어 매우 좋았다. 특히 배우 서신애가 어린 감성으로 내레이션을 해 주어 듣기 좋았다.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정전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 2016년 7월 27일은 정전 63주년이 되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6.25 참전용사와 U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이다.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UN 6.25 참전용사들이 평생 가슴에 품어왔던 바람인 한국을 방문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더 뜻깊고 의미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하게 보여주어 좋았다. 특히 전쟁기념관에서 전쟁 당시 21세였던 캐리 장군이 전사한 전우를 기억하는 모습에서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7월 29일 보고서>

○ 1TV 「KBS특선 공연실황 일블로와 도밍고」

-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이탈리아 출신 남성 팡페라 그룹 일 블로가 함께한 공연이 방송되었다. 지난 7월 1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진행된 공연 실황으로 플라시도 도밍고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 주요 곡 지휘는 물론 일블로와 합동 무대를 선보이며 화제가 되었었다. 마치 음악회에 와 있는 듯한 감동적인 공연을 방송해 주어 감사하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일일 연속극「별난 가족」

- 꿈과 사랑을 향한 치열한 청춘들과 그 걸 별난 가족들의 이야기로 그동안 드라마 속 배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매우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제 1회만 남기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며 마지막 회까지 잘 시청하겠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제작진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 <11월 25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낭만가객 최백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노래 40년, 최백호' 특집이 방송되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로 시작해 '입영전야', '영일만 친구' 등 최백호의 대표 곡과 아이유, 린 등 후배 가수들과의 합동 무대로 꾸며졌는데 매우 보기 좋았다. 방송을 보며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1월 2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무림학교」

- 취업과 스펙쌓기가 아닌 정직, 신의, 생존, 희생, 소통, 관계 등 사회에 나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덕목을 배우는 무림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20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로맨스 드라마이다. 첫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청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다.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의 아이돌 무대와 액션 장면이 나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어 좋았다. 소재가 신선하고 매력 있어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된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조기퇴직 후 자본금 500만 원으로 파이 굽는 일을 시작해 연 매출 9억 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규철 씨의 성공 비결이 방송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창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성공사례를 소개해 주어 감사하다. <1월 27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부탁해요, 엄마」**

- 세상에 다시없는 양숙 모녀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드라마이다. 엄마처럼 살기 싫었으나 엄마와 같은 삶의 길을 걷게 되는 여주인공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감동스럽다. 드라마를 통해 가족의 따뜻함과 엄마의 소중함을 알려주어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어 감사하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장사의 신-객주 2015」**

- 폐문한 천가객주의 후계자 천봉삼이 시장의 여러꾼으로 시작해 상단의 행수와 대객주를 거쳐 거상으로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탐욕이 아닌 정의로운 부를 쌓는 장사꾼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장학과 유오성, 그리고 조연들의 뒷받침되는 연기력이 뛰어났고, 극본이 훌륭하여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방송이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2월 22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삼둥이네가 하차하여 아쉬웠지만, 새로운 출연자 이범수와 기태영 가족의 모습이 기대된다. 이날은 아이들을 위해 2시간에 걸쳐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아 실망하는 이범수의 모습이 아빠들의 육아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뽑기에 열중하는 모습은 천진난만해 보였다. 또, 기태영이 자신의 딸 로희를 비롯해 이동국의 아이들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육아전쟁을 치루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공사창립 특별기획「이미자 음악회」**

- 공사창립 43주년, 이미자 데뷔 57주년을 기념하여 57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이미자 음악회가 방송되었다. 국민가수라 불리는 이미자의 히트곡과 가곡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와 함께 들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었다. 특히 성악가 고성현과 함께 부른 '라 팔로마'는 트로트와 클래식의 협업 무대로 색달랐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수와 관객의 반응 등 현장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어 마치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해 좋은 시간이었다.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7일 보고서>

○ **2TV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힘들 때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주인공 조봉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 홍성국(차도진 분)의 책임감 강하고 남자다운 모습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이날은 서동필(임호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마음 아파하는 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오애숙(조은숙 분)과 서모란(서윤아 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드라마가 종영되면 좋겠다. 애잔하고 공감되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2월 24일 보고서>

○ **2TV 공사창립 특별기획「태양의 후예」**

- 군인과 의사의 사랑이라는 낯선 소재와 휴머니즘이란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심을 자극하는 신선하고 감각적인 대사와 경쾌하고 빠른 스토리로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날 우르크 지진현장 묘사는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주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존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과 화려한 영상미는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 군인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충분히 표현해 주는 에피소드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14일 보고서>

- 제작비 130억 원이 투자되고 100% 사전 제작 드라마로 한중 동시 방영되어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30% 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재미있어 즐겨 시청한다. 특유의 군대식 말투와 송송(송중기, 송혜교)커플, 구원(진구, 김지원)커플의 로맨스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다. 사전 제작된 드라마여서 연장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여 기대가 된다. 군인과 의사의 사랑을 다룬 새로운 소재와 휴머니즘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심을 자극하는 신선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4월 11일 보고서>

-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은 「태양의 후예」가 유대위(송중기 분)와 서상사(진구 분)의 무사 귀환으로 두 커플의 달달한 로맨스가 결실을 맺는 해피엔딩으로 종영되었다. 잘 짜인 구성과 매력적인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달달하면서 감각적인 대사와 아름다운 영상미는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어 신선했는데 드라마가 끝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열풍만큼이나 시청자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4월 18일 보고서>

○ **2TV 공사창립 특집「해피 선데이-1박 2일」**

- 하얼빈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장소를 둘러보며 역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기존 오락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배움 및 감동, 예능의 웃음까지 볼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출연자들이 함께 걸으며 순국의 순간을 보여주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동양평화 사상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또,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으로 어머니 전상서는 보는 내내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감동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23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 2대에 걸친 네 모녀의 얽히고설킨 악연의 굴레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1인 2역을 맡은 이유리가 같은 배우지만 확연히 다른 느낌의 극과 극으로 상반된 2인 2색 사랑법을 보여주어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긴장감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봄 특집으로 여섯 명의 배우가 혼자 또는 팀을 구성해 출연했다. 임채무를 제외한 다섯 명이 모두 가족이나 동료, 후배 등 지원군과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 혼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무대를 연출해 볼거리가 풍성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만의 끼와 독특한 분위기로 노래를 소화해 가수들과는 다른 느낌의 즐거움을 주었다. 대기실 토크에서도 연기에 관한 이야기나 퍼포먼스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신선한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안전 상식을 알리기 위해 앞장 선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월 14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백희가 돌아왔다」**

- 조용한 섬 섬월도에 과거의 스칼렛 오하라 양백희가 신분 세탁 후 18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드라마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척 상처만 주고 살아온 두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달해 주어 좋다. 특히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력과 스토리가 훌륭해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6월 14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아이가 다섯」**

- 가족들의 사랑과 갈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코믹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재혼가정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어 방송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총 54부작으로 얼마전 4부작이 연장된다고 들어 기쁘다. 특히 이날은 이상태(안재욱 분)와 안미정(소유진 분)이 집들이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족 모두 서로를 아끼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7월 6일 보고서>
- 사랑과 갈등을 겪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했다. 얽히고설킨 갈등이 하나씩 풀리면서 매우 흥미진진했다. 가족들끼리 서로 아끼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재혼 가정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잘 담아내어 보기 좋았다. 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탄탄한 전개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8월 22일 보고서>

○ **2TV 추석특집「노래싸움 승부」**

- 다양한 직군의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트레이닝을 받은 뒤 1:1 듀엣 서바이벌 대결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뽑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가수가 아닌 연예인들이 음악감독과 한 조를 이뤄 노래 대결을 펼치는데, 스타들의 숨은 노래 실력을 볼 수 있어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여주었다. 새로운 형식으로 신선함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 춘데레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과 남장 내시 홍라운(김유정 분)의 예측불허 궁중위장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이다.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은 한 나라의 군주로서 조선의 앞날을 생각하는 책임감 넘치는 모습과 따뜻한 성정을 표현해 주어 매우 보기 좋았다. 또,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이 홍라운(김유정 분)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을 드러내며 보는 시청자도 애잔하게 만들었다.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9월 21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일상 이야기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17년간 키운 자식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과 서울 도심에서 20년간 토스트를 굽고 있는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어 좋은 것 같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슈퍼맨이 돌아왔다'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슈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슈돌 배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원년 멤버인 추성훈과 추사랑이 깜짝 출연해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차한 가족들의 근황이 궁금했었는데, 사랑이네 가족을 만날 수 있어 매우 좋았다. 또, 다음 주 예고편에서 송일국과 삼둥이를 만날 수 있다고 나와 기대된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양복점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의 눈물과 우정, 성공 그리고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다. 본인도 양복 재단사로 근무했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절의 추억에 젖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다. 또, 배삼도(차인표 분), 복선녀(라미란 분) 커플과 민효원(이세영 분)과 강태양(현우 분) 커플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해 보며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2016 KBS 연예대상」

- 김종민이 유재석, 김준호, 이휘재, 신동엽 등의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연예대상을 수상했다. 김종민은「해피 선데이 1박 2일」시즌1부터 현재까지 9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야외취침, 복불복 등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 고생한 김종민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2월 27일 보고서>

## 9. 표현(소재)

○ 1TV 「KBS 뉴스 7」

- 대중교통편을 미처 구하지 못했거나 어린 아이들 때문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속도로 정체 때문에 더욱 힘든 귀성길이 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취재기자가 직접 차량을 타고 귀성길 행렬에 함께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기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안전운전에 대해 보도하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도심 총격전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 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보도되어 사제 총기가 어떻게 제작되고 구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죄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자세하게 보도되면 시청자들이 모방을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도해 주기 바란다. <10월 24일 보고서>
- 뉴스 말미에 일기예보를 알려주어 끝까지 챙겨본다. 그런데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은 크게 춥지 않겠다며 알려주었는데, 왼쪽 상단의 자료화면에 '내일 큰 추위 없어요!'로 잘못 표기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뉴스인 만큼 오타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미터기 조작은 물론 카드결제 승인이 안 났다고 속인 뒤 두 번 결제해 요금을 최대 5배나 올려 받은 콜밴 기사들이 대거 적발되어 보도되었다. 그런데 자료화면에 콜밴이 아닌 대형택시도 같이 나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화면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잘 알지 못하는 1960년대 이전의 노래들이 많이 선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960년대 이후 대중가요도 자주 방송에서 들을 수 있도록 노래 선곡 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지역 주민들의 노래와 끼를 볼 수 있는 무대를 가졌다. 지역의 먹거리를 가지고 나온 출연자가 있었는데 그중 통닭을 사회자 송해가 시식하고 통닭 한 마리를 통째로 관객석에 던지는 모습이 위생상 보기 좋지 않았다. 관객석과 음식을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양궁 전종목 석권, 국가대표 선발전 특집 다큐 숫자의 게임」

- 리우올림픽 양궁 대표선발 경쟁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화면 자막으로 선수들의 약력을 보여주었는데, 글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체로 되어있어 보기 불편했다.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방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에는 고려해 주기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2015년 10월 13일, 고국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 온 아프가니스탄 나히드 가족의 1년 뒤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이슬람 율법에 의해 외출이 제한적인 엄마, 언니를 대신해 12살의 어린 소녀가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만 하는 나히드 가족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방송된 내용과 너무 비슷해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1년 뒤 모습을 다루는 만큼 이전 내용은 조금만 보여 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제철 밥도둑' 코너에서는 지난 주 상하이 편에 이어 일본 편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먹거리가 많은데 외국을 소개해 주는 건 이 프로그램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외국보다 우리나라를 소재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1TV 「KBS-CCTV 공동제작 5부작 임진왜란 1592」

- '침략자의 탄생,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인 만큼 극중 대부분이 일본어로 우리말은 자막으로 표기되어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는 경우 자막을 따라 시청하기 어려워 자막보다 더빙으로 방송을 진행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경부고속도로 귀성길에 취재기자가 직접 차량을 타고 현재 상황을 보도해 주었다. 그런데 취재기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해 보기 불편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세계」

- 동물들의 타고난 습성 및 생존전략에 대해 방송되었다. 동물들이 번식 습성과 양육방식에 대해 알려주어 매우 흥미로웠다. 그런데 9월 26일에 방송된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2편에 나누어 방송되는 경우라도 중복되는 내용 없이 신선한 방송을 해 주기 바란다. <9월 29일 보고서>

○ 2TV 「KBS 특선 대작 전쟁과 평화」

- 19세기 초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5개의 귀족 가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높은 예술성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자막으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더빙으로 방송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에는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부탁해요, 엄마」

- 임산옥(고두심 분)이 선혜주(손여은 분)에게 반찬가게 일을 무리하게 시켜 이형규(오민석 분)가 엄마를 원망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데 보기 불편했다. 드라마의 설정이지만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형제가 서로 폭력을 가하는 장면은 다소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아내의 중독적인 쇼핑과 반품이 고민인 남편이 출연하였다. 그런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과 이미 사용한 제품까지 반품을 일삼는 출연자가 놀라웠다. 특히 등산화나 이불을 사용한 후 미사용으로 주장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이 내용이 방송되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되었다. 출연자가 본인의 문제점을 알고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차후에는 소재 선택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적절한 보상 없이 일하는 것이 고민인 20대 카페 직원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사연의 주인공은 카페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카페 사장의 어머니, 남동생이 각각 운영하는 호프집에 수시로 불려가 일해야 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반면에 카페 사장 가족들은 주인공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벼운 고민으로 치부하고 예능 소재로 희화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사연 선정에 보다 유의해 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개그콘서트」

-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쇼로 '웰컴 백 쇼'코너가 진행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준호의 미녀도우미로 윤사랑이 함께 나왔는데 윤사랑이 몸매가 매우 부각되는 옷을 입어 아이들과 함께 보기 민망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상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정치에 대한 풍자로 화제가 되었던 민상토론 두 번째 시리즈가 방송되었다. 이날 송준근은 "비선실세 최순실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최순실 게이트' 풍자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러한 소재를 개그로 승화시켜 보기 불편했다. 소재 선택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제로 현 시국을 풍자하는 '대통령' 코너가 첫 방송되었다.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100통이 있다, 골품 체조를 10억을 들여 만들었다, 굳이 대면보고가 필요하냐는 등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보기 불편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은 되도록 지양해 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특별기획「베이비시터」

-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던 가정주부의 집에 베이비시터로 들어온 젊은 여자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고 결국 아내가 이들을 살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4부작 드라마이다.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는데 19세 이상 관람가로 되어있어 놀랐다. 10시면 아직 이른 시간으로 아이들도 깨어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부부의 키스 장면 등이 너무 길게 편집되어 선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방송시간을 변경해 주거나 선정적인 장면은 편집해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공사창립특집「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이휘재가 아이들 감각 발달에 좋은 촉각 놀이를 위해 밀가루 한 포대를 사용해 집안에 밀가루 놀이터를 만들었다. 보통 시청자들은 쌍둥이네와 같이 넓은 방이 없고 치우기가 힘들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 재료를 방송에서 놀이로 사용하는 게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소재 선택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시대를 초월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긴 가요계의 거목 '故 박춘석'편 2부가 방송되었다. 이날은 5번째 무대로 스테파니가 '황혼의 엘레지'를 불렀는데 가창력 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으로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또, 핫팬츠 차림에 다소 선정적인 의상과 피아노 위에 올라가 엔딩을 장식하는 안무는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불편했다. 앞으로 선정적인 무대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한국인이 사랑한 70년대 록 밴드 스모키의 크리스 노먼이 전설로 출연했다. 본인도 매우 좋아하는 밴드로 오랜만에 감성적인 무대를 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런데 노래 가사가 영어로 표기되었는데, 한글 자막으로도 표기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에는 시청자를 배려하여 한글 자막도 표기해 주기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불법선거 혐의들이 포착되면서 당선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에 당선이 무효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었다. 그런데 당선자의 경우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2TV KBS 특별기획 드라마「함부로 애틀하게」**

-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악연으로 헤어졌던 두 남녀가 안하무인 톱스타와 비굴하고 속물적인 다큐 PD로 다시 만나 그려가는 까칠하고 애틀한 사랑이야기이다. 김우빈, 배수지 등 훌륭한 출연진과 100% 사전 제작드라마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하고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촬영한 계절이 겨울로 지금 계절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차후에는 편성 시 계절도 고려하여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리우」**

-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탁구 국가대표 선수 서효원과 정영식의 이야기를 리우 현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를 하기 전 인터뷰 영상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선수들의 옷 왼쪽 가슴에 붙인 KBS 로고 때문에 태극기가 가려져 보기 불편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인 만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 이영(박보검 분)은 홍라온(김유정 분)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홍라온(김유정 분)에 대한 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영(박보검 분)과 홍라온(김유정 분)이 키스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홍라온 역인 김유정은 1999년생인 미성년자로 키스신이 나와 놀랐다. 차후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추석특선 영화」**

-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날 영화 '내부자들'이 저녁 10시부터 편성되었다. 이 영화는 19세 이상 관람가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차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영화를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공항 가는 길 1, 2회 특별판」**

- 지난 1, 2회 방송을 60분으로 압축한 특별판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도 1, 2회 재방송이 편성되었는데, 본 방송 1시간 전에 편성되어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또, 특별판 편성으로「루키」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 편성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9월 30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2016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K-CHART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알려주었다. 방송화면에 현재 순위를 알려주고 지난주 순위와 비교하여 하락, 상승을 보여주는데, 3위인 방탄소년단은 ▼2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다른 가수들의 숫자는 정확히 표기되었는데 방탄소년단의 하락된 숫자 2 뒤에 1이 겹쳐 보여 혼동스러웠다.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K차트는 디지털 음원, 음반판매, 방송횟수, 시청자 선호도 조사를 집계하여 순위를 정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음반판매에 기존에는 없었던 해외 판매량이 포함되어 순위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2TV 「비타민」

- 넘쳐나는 건강·의학 지식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진짜 정보'를 알아보고 성역과 금기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11월 10일 지난 방송부터 토론 형식으로 진행방식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하기보다 예능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 개편 이전으로 진행방식을 다시 변경해 주기 바란다. <11월 21일 보고서>

○ 라디오 개편 제언

- 이번 봄 개편으로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와 「임지훈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등 여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트로트 음악도 많이 나와서 공감되고 좋았는데, 변경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만 주로 나와 아쉬운 마음이 든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해 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KBS 뉴스 트위터

-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KBS 뉴스 공식 트위터에서 '박근혜가 어제 촛불 집회 이후 청와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 대통령을 호칭 없이 공식적인 트위터에 올려 보기 불편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기 바란다. <11월 16일 보고서>

| 10. 간접광고 |

○ 1TV 「전국노래자랑」

- 매주 각 지역을 찾아가 지역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마지막에 최우수상 수상자가 앵콜 노래를 부를 때, 협찬 화면이 나온다. 그런데 수상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시청자는 협찬 화면이 나와 보기가 불편하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상자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본 방송 시간이외에는 없다. 협찬 고지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따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31일 보고서>
- 방송 마지막에 최우수 수상자의 앵콜곡으로 방송이 끝난다. 그런데 앵콜곡을 하는 중간에 협찬 화면과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에 대한 안내가 나와 앵콜곡을 잘 듣지 못해 아쉬웠다. 세계대회 안내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간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21일 보고서>

## 11. 언어

### ○ 1TV 「도전, 골든벨」

-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으로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재치와 생각, 가치관과 문화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진행자인 김지원 아나운서의 마이크에 'Jiwon' 팻말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보기 불편하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니 가급적 영문 사용은 지양하고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 1TV 「우리말 겨루기」

-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 시작 시 도전자들이 한명씩 자기소개를 한다. 첫 번째로 10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출연하였다. 그런데 아나운서와 출연자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사법고시가 아닌 '사법시험'이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말을 겨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9」

- KBS 뉴스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美, 北, 日 등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데, 한글로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말 사용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김무성 대표가 정종섭, 추경호 후보들에게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친박계 최고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해당지역 공천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옥새라는 말은 대한제국기까지의 사용되던 국왕의 인장을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다. 직인으로 또는 올바른 표현으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 1TV 일일연속극「우리 집 꿀단지」

- 드라마를 시청하기 전에 남녀 주인공 2명이 나와 새해인사를 했다. 드라마를 즐겨 시청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강마루(이재준 분)가 "구정 연휴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라고 말했다. 구정은 낡은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양력설' 또는 '음력설'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광장」

- 졸업시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꽃시장에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방송 초반에는 일산 '꽃시장'으로 나왔는데, 후반에는 '일산 플라워마트'로 자막 표기되어 보기 불편했다. '꽃시장'이라는 우리말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대장암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한국형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을 섭외해 방송되었는데, 김남규 교수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고 '저희나라'라고 계속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 '저희나라'는 우리나라를 낮추는 말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출연자 발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미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탈옥을 하기 위해 간수를 공격했는데, 다른 수감자가 이를 도운 모습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간수'는 '교도관'의 옛 용어로 순화된 용어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1TV 「KBS CCTV 공동제작 5부작 임진왜란 1592」

- 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한 임진왜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5부작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화려한 영상미 예고 방송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꼭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방송 사상 최초의 팩츄얼 드라마', '방송 사상 최고의 스펙터클' 등 영어로 된 자막이 표기되어 어떤 뜻인지 잘 알지 못해 답답했다. 되도록 우리말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2015년 연예계 유행에 대해 요약하여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송에서 '트렌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외래어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 방송에서 만큼은 우리말 사용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외국인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주제와 관련해 김숙이 성시경에게 "사실 이쪽은 성시경씨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시경이 "이 친구들이 자기만의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이휘재가 "핫스팟이 있구나?"라고 말하고 자막에 '외국인이 꼭꼭 숨겨놓은 서울의 히든 플레이스'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성시경이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표현한 만큼 '핫스팟', '플레이스' 등의 외국어 보다 우리말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12. 장애인·차별

○ 1TV 대하드라마「장영실」

-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화면해설방송을 즐겨 시청한다. 「대하드라마 장영실」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내는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로 극본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해설방송으로 꼭 보고 싶다.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전국 이야기 대회 '내 말 좀 들어봐'가 방송된다. 이날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출연자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출연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출연자가 서서 발언을 할 때 힘든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몸이 불편한 출연자의 경우 앉아서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2TV 장애인의 날 특집 드라마「퍼펙트 센스」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드라마가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시력을 잃어가는 주인공이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와 은퇴를 앞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나면서 긍정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화면해설 없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장애인을 배려하여 차후에는 화면해설을 해 주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 13. 일기예보 |

#### ○ 1TV 「KBS 뉴스 9」

- 일기예보를 통해 다음날 날씨를 미리 알 수 있어 매일 저녁 꼭 챙겨본다. 그런데 일기예보에는 항상 여자 캐스터만 진행하는 것 같다. 남자 캐스터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를 제일 처음으로 알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이날 장주희 캐스터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밑에 단추가 풀려 속이 다 비쳐 보기 불편했다. 의상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 14. 방송품질 |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매주 금요일에는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모든 분야의 최신정보를 직접 검증해 주고 지난 한 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 5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 주어 좋았다. 그런데 출연자들 뒤로 방청객들이 자리하고 있어 설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방청객들의 자리 배치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 1TV 「전국노래자랑」

- 1819회로 전북 장수군 장수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방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르신들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있어 보기 불편했다. 어르신들이 주로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청자도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 1TV 일일연속극「별난 가족」

- 일일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강삼월(길은혜 분)이 신분을 속이고 사기죄로 고소당해 잠적하는 내용으로 방송되어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도중에 화면은 그대로인데 다른 소리가 들려 보기 불편했다. 오류 없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 2TV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 조들호」

- 잘 나가던 검사가 검찰 조직의 내부고발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소시민을 위한 양심 변호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기대했던 만큼 내용은 짜임새 있게 전개되었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그런데 일부 화면이 반복되게 흔들려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시에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 2TV 주말연속극「아이가 다섯」

- 이날 방송에서 이상태(안재욱 분), 안미정(소유진 분)이 장민호(최정우 분), 박옥순(송옥숙 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방송과 무관한 「특별기획 10부작 코리언 지오그래픽」 화면이 나와 놀랐다. 이후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자막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2TV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 2016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LG 대 넥센의 경기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이전에 보던 다른 경기와는 달리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여 보기 불편했다. 시청자가 보기 편한 각도로 중계방송해 주기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

- 2018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예선 카타르와의 경기가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해 경기 진행 상황을 전해 주어 좋았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해도 잡음이 너무 심해 기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점을 주의해 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2R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를 즐겨듣는 청취자이다. '전화 노래자랑'은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여 노래를 부른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도전자가 전화기를 가까이 대고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잡음이 섞여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청취자 입장에서 좀 더 듣기 편하도록 도전자에게 사전에 지도해 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15. 시청자 참여

○ 1TV 「아침마당」

- 매주 월요일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5인이 펼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대결로 '고급정보열전' 코너가 진행된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 여부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날 방송부터는 ARS 투표는 하지 않고 티벳 참여로만 진행된다고 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티벳 이용이 불편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제까지 방식대로 계속 진행해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매주 월요일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5인이 펼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대결로 '고급정보열전' 코너가 진행된다. 시청자들의 투표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데 언젠가부터 ARS 투표는 하지 않고 티벳 참여로만 진행되어 불편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는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ARS 투표도 진행해 주기 바란다. <5월 19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6시 내고향 6,000회를 맞이하여 귀한 토종씨앗을 전시하고 나누어 주는 토종씨앗축제를 진행한다고 방송되었다. 첫날(4.14)은 오후 3시, 6시에 나누어 주고 둘째날(4.15)은 낮 12시, 오후 3시, 6시에 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첫날 씨앗을 받으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부가 완료되어 당황스러웠다.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직접 현장에서 「열린음악회」를 보고싶어 방청권을 신청해 당첨되었다. KBS홀에서 7월 19일 19시 30분 녹화방송 되는 방청권이었는데, 좌석표 교환은 녹화 당일 오전 11시부터 녹화 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좌석표 교환 전에 방청권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 방청권 보다 많은 좌석표가 배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특집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 십시일반」

-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기부 방식인 신개념 기부 쇼 프로그램이다. 작은 마음이 모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매우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기부방법이 십시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본인과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전화 ARS 등 기부방법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2TV 「2016 KBS 가요대축제」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최고의 음악 축제가 2016년 12월 29일에 열린다고 해 KBS 홈페이지에서 방청신청을 했다. 당첨자는 12월 26일 저녁 6시 이후 신청자 휴대전화 SMS로 당첨내용을 보내준다고 해 기다렸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 궁금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당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MS로 발송되지 않아 당첨된 것이 맞는지 궁금했다.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기 바란다. <12월 28일 보고서>

## 16. 홈페이지 |

○ 1TV 「열린음악회」

-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했는데 당첨되었다. 방청을 하려면 대리인의 경우 당첨자와 대리인 본인 신분증 둘 다 필요하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당첨자 신분증 원본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동스러웠다. 정확히 안내해 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2R 「라디오 독서실」

- 매주 문학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소개해주고 작가로부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소설 일부 내용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들려주어 좋다. 그래서 자주 홈페이지 다시듣기를 통해 재 청취하는데 작가나 작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 방송일자 확인이 어려운 청취자를 배려하여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홈페이지 다시보기 제언

- 본인은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작해주는 KBS에 감사하다. 그런데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했을 경우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본인처럼 고령층들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 시청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시보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프로그램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메뉴를 고쳐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프로그램을 놓쳤을 경우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한다. 이전에는 전체보기 메뉴 옆에 팝업창 메뉴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보기 메뉴에서 팝업창으로 볼 수 있는 메뉴가 없어서 불편하다. 현재는 전체보기로 시청할 경우 화면이 선명하지 않게 보인다. 이전과 같이 팝업창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다시 듣기 제언

- 60대 노인으로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방송을 놓친 경우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많다. 그렇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다시 듣기가 되지 않거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뉴스도 다시 듣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2월 29일 보고서>

○ 홈페이지 개설 요청

- 「위기탈출 넘버원」이 폐지되고 2부작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버스」가 방송되었다. 일반인들의 고단한 삶과 희망을 전달해 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아 홈페이지에 시청소감을 남기고 싶었는데, 다시보기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특집 프로그램이나 파일럿으로 방송이 될 경우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는 것 같다. 특집 프로그램이라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어 시청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17. KBS 애플리케이션 |

○ Kong 어플

- kong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좋다. 사연은 최대 100자 이내만 입력 가능한데, 글자 수를 따로 표기해 주지 않아 입력 도중에는 알 수 없어 불편하다. 청취자들이 사연을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본인은 휴대전화 Ko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청취한다.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시보가 현재시각과 몇 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 시간 차이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18. 프로그램 구매 |

○ 1TV 「도전, 골든벨」

- 고등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골든벨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비서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담은 책도 발간되어 좋았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 분은 도서로 발간되지 않아 아쉽다. 이후 문제도 도서로 발간해 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다양한 의학 정보를 비롯해 생활 속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 정보가 자막으로 나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방대하여 메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방송정보가 게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과 같은 장년층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매번 시청자상담실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 방송된 내용을 요약해 도서로 발간한다면 훌륭한 생활정보 도서가 될 것이다.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삶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해 실제로 그 지역을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방송되었던 여행지가 도서로 출간된다면 좋을 것 같다. <3월 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저녁 시간대에 우리나라 구석구석 현장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최근 생생정보 속 '황금 레시피'에서 사랑받은 메뉴와 인기 검색어 메뉴 89가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황금레시피' 코너는 요리 초짜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코너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레시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생활 노하우 및 팁도 책으로 발간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서로 발간해 주기 바란다. <12월 9일 보고서>

| 19.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9」

- 우리 해역에 있는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해경 상황실은 비상사태일 때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전파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대형 해난 사고의 초기 대처가 한동안 마비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안전과 직결된 상황안전시스템의 허술한 보안과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해경,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김민철 기자가 말할 때 다른 여자의 목소리와 겹쳐 들려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다.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통장에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일부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는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후에는 정확히 확인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공기청정기, 가정용-자동차 에어컨, 젖병 소독기까지 생활가전제품 필터에서 또다시 OIT라는 유독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방송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아쉬웠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제품 그리고 어떻게 유해한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후속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25일 보고서>
- 냉방용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마다 누진제 요금 체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는 8월 9일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효되는 때에 선풍기만 계속 틀수도 없고 너무 힘겨운 여름이다. 이와 관련해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8월 11일 보고서>
-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에 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총 128차례 발생한 지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시민들은 저녁 시간만 되면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지진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 최순실이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취재진에 시위대까지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장면이 반복적으로 계속 보도되어 보기 불편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다른 이슈들도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라며 최순실 관련 내용은 새로운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해 주기 바란다. <11월 3일 보고서>

- 9시 뉴스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뉴스에서 미국대선 트럼프 당선에 대한 내용이 30분 이상 보도되어 분량이 많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최순실 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외국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 같다. 우리나라 이슈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 주기 바란다. <11월 11일 보고서>
-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당국과 언론 사이에 '밀실 서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11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스포츠)」**
  - 2016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인터밀란 대 파리생제르망의 경기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날은 3대 1 파리생제르망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그런데 스포츠 뉴스에서 기자가 "후반 42분, 인터밀란은 오리에의 헤딩 썬기골을 추가하며 파리 생제르망에 3대 1로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자막에도 '인터밀란 3 : 1 파리 생제르망'으로 표기되었다. 오류 없이 정확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논산 육군훈련소 주변 숙박업소들의 도를 넘는 바가지요금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든 숙박업소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처럼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보도 시에는 시청자들이 오해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KBS 뉴스」**
  - SNS에 올라온 남녀 사진을 모아 이들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허위 비방한 강남패치, 한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운영자의 집에서 추궁하는 장면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검거를 진행한 것이겠지만, 이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 차후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도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9월 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속보」**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3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뉴스 제목을 보면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것 같이 느껴진다. 오해 없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4시 뉴스집중」**
  -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광화문에 세운다는 박정희 전신 동상과 관련해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 시점에 맞는 주제를 다루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청자본부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40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계
15	7	14	4	40

※ 2016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8일	손**	전주방송총국 특집제작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받은 금액(이의신청서)	비공개	정보공개 법률 제9조 7항"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1월 27일	이**	KBS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	KBS손익예산서 (2011-2014년도)/KBS직급별 급여인상률(정규직)
3	2월 11일	민**	무용 '선원'의 KBS홀 5월 공연취소 사유 공문	공개	공연 '선원'의 5월 공연취소 사유에 대한 결과
4	2월 15일	이**	정보공개청구건의 제 3자 비공개요청 관련 회신	비공개	제3자 입장
5	2월 16일	송**	KBS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현황 전수조사 자료 공유요청	공개	KBS파노라마를 통해 공개한 고독사 분석표 외
6	2월 23일	이**	KBS 수입 및 지출내역/ 총 직원 수 연도별 상세내역	공개	KBS 손익예산서(2011-2014년도)/KBS직급별 급여인상률(정규직)
7	2월 26일	박**	재방료 지급 건	공개	한국방송실연자협회로부터 반납 받은 근거 외 신청인 재방료 지급 건
8	3월 22일	이**	방송표준방식 관련 건	공개	TV 방송 표준 방식 및 라디오 방송 표준 방식에 관한 답변
9	3월 22일	박**	KBS가 방송실연자협회에 지급한 발전금의 명목과 연도별 금액	공개	2011~2014 KBS에서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지급한 발전기금 내역
10	3월 28일	이**	○○군청 직원의 불륜 등	비공개	KBS와 무관, 정보부존재
11	4월 1일	박**	당사 정○○ 부당해고 건	불문처리	인사부에서 처리
12	4월 18일	이*	2000년 제21회 근로자가요제 녹화영상 사본 요청	청구취하	영상자료 구매로 청구 취하
13	4월 19일	언론개혁 시민연대	KBS시청자상담실 자료공개 요청 건	부분공개	시청자상담실 자료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4	4월 25일	김**	KBS 제주국 7시20분 뉴스 (4/22) 관련 건	비공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화면 프로그램에서 삭제하였음
15	5월 8일	이**	중국대사관 공문요청('선위' 공 연관련 파룬궁이 사교로 지정 된 근거공문)	비공개	국가 대 기관의 중요문서이므 로 공개할 수 없음
16	5월 12일	한**	북한 당대회 관련 방송분량	공개	방송 다시보기 홈페이지 참조
17	5월 19일	이**	TV, 라디오 방송전파 관련 건	공개	TV, 라디오 방송전파 방식 설 명
18	5월 23일	이**	UHD 지상파 방송 시청 관련 건	공개	UHD 지상파방송 수신시 별도 의 셋탑박스 설치
19	5월 23일	김**	1960년대 KBS 캘린더 콘테스트 관련 건	비공개	KBS캘린더 콘테스트 관련자료 보유내역 회신
20	5월 30일	조**	대국민토크쇼<안녕하세요> 인 터뷰내용 2013년 1월 14일 방 송분	비공개	원본 자료보관 기간이 경과하 여 삭제되었음
21	5월 30일	조**	대국민토크쇼<안녕하세요> 인 터뷰내용 2016년 5월 23일 방 송분	비공개	원본 자료보관 기간이 경과하 여 삭제되었음
22	5월 30일	서**	KBS수원센터 견학홀 위탁운영 관련 건	공개	2013-2016년 위탁홀 운영 현 황
23	6월 3일	조**	2015년 시청료 수입지출내역	비공개	2015년도 국회결산 미승인 자 료
24	6월 3일	손**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 수입 내역 및 제작비	부분공개	KBS전주 국악한마당 2015. 5 월~2016년 5월까지 제작비내 역 회신
25	6월 13일	조**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원본 테잎 요청	비공개	원본 자료보관 기간이 경과하 여 삭제되었음
26	6월 21일	조**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원본 테잎 요청	공개	원본자료 우편 발송(usb)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7	6월 27일	손**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 이의신청 건	비공개	정보공개 법률 제9조 7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28	7월 7일	손**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	비공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 부존재로 공개 불가함을 알림
29	8월 11일	김**	법률자문번호사현황	부분공개	개인 성명 익명 처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0	8월 11일	이**	2012년 9월 20-30일경 본인 사건 방송여부 공개요청	비공개	민원인의 얼굴을 알 수 없고,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음을 알림
31	8월 11일	손**	기각 요청 답변서 회신	해당없음 내용 무	정보공개 법률 제9조 7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2	9월 26일	김**	청각장애이용 폐쇄 자막	공개	2014년 7월 1일~31일 뉴스 9 자막 공개
33	10월 4일	이**	허○○ 관련 민원	비공개	정보부존재
34	10월6일	박**	TV수신료 및 한전 수수료 사용 내역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35	10월 26일	이**	허남석 관련 민원	불문처리	중복민원
36	11월 8일	정**	TV수신료 및 광고 관련	공개	
37	11월11일	김**	KBS전국노래자랑 구미시 편 관련	부분공개	회당 제작비 정보는 고유한 영업비밀사항, 녹화장 운영 계획서는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
38	12월 12일	이**, 손**	중행위 심리기일 통보	해당없음	TV 방송 표준 방식 및 라디오 방송 표준 방식에 관한 답변
39	12월20일	이**	중행위 심리기일 통보	해당없음	2011~2014 KBS에서 한국방송실연자협회에 지급한 발전기금 내역
40	12월 26일	이**	2012년 9월 24일 본인 관련 KBS뉴스9 보도 기록	비공개	민원인의 얼굴을 알 수 없고,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음을 알림



# 시청자 권익보호

##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 6

#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sup>2)</sup>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가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 2010년 6월 11일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시청자본부장이다.

2016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57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57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시청자상담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1	0	2	3
2		0	0	1	1
3		5	0	3	8
4		1	0	3	4
5		3	0	6	9
6		4	2	1	7
7		1	2	6	9
8		1	0	2	3
9		0	1	3	4
10		1	0	1	2
11		0	0	4	4
12		1	0	2	3
계		18	5	34	57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66건)			비제작부문(59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6	16	10	2	13	10	57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6	10.5%
보도 취재요청(스포츠 포함)	7	12.3%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7	12.3%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1	1.8%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5	8.8%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0	0.0%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10	17.5%
난시청, 난청	8	14.0%
경영(직원, 시설)	11	19.3%
수신료	2	3.5%
계	57	100.0%

# 7

##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국이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sup>3)</sup>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sup>4)</sup>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국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sup>5)</sup>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편 성	<p><b>□ 1TV [KBS 특선 대작 전쟁과 평화] 원음 방송 제언</b></p> <p>- 19세기 초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5개의 귀족 가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높은 예술성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자막으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더빙으로 방송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에는 고려해주시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편성주간</b></p> <p>- 요즘 원음 방송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시험적으로 해당 방송에 대해 원음(자막) 방송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며, 특별한 변경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음(자막)으로 할지, 성우더빙으로 할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p>
편 성	<p><b>□ 1TV [국악 한마당] 출연자 의상 제언</b></p> <p>-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창작 판소리 슈퍼덱 씨름대회 출전기를 작창·사설 김명자가 무대를 꾸몄다. 다양한 국적의 여자들이 씨름대회를 벌이는 내용이었는데, 출연자가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트렁크를 입고 덤블링을 하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판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겠지만, 차후에는 충분한 설명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p>	<p><b>□ 담당부서 : 전주총국</b></p> <p>-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여자들이 씨름대회를 다룬 창작 판소리 내용입니다. 방송 분량상 대한민국의 지역만 나왔지만, 전체 분량은 여러나라를 다루었습니다. 또, 씨름의 특성상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은 트렁크 밖에 없습니다. 태극기가 보여지는 부분은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몰입을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우리 국악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b>□ 1TV [KBS 뉴스 12] 보도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여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를 언급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뉴스제작 3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기예보는 매일 중요한 날씨 정보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li> </ul>
스 포 츠	<p><b>□ 2TV [여기는 리우]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탁구 국가대표 선수 서효원과 정영식의 이야기를 리우 현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를 하기 전 인터뷰 영상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선수들의 옷 왼쪽 가슴에 붙인 KBS 로고 때문에 태극기가 가려져 보기 불편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인 만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스포츠중계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면 합성을 위한 기술인 크로마키의 배경색으로 통상 파란색을 사용 (선거와 중계방송에 사용)합니다. 크로마키를 활용해 방송 할 경우 피사체가 배경과 같은 파란색이면 피사체가 사라지고 대신 크로마키의 화면이 방송에 보입니다. 이번 스튜디오 출연의 경우 태극기를 그대로 방송할 경우 태극문양 하단부의 파란색 부분이 뒤 배경(예를 들면 리우 해변 또는 리우 경기장) 크로마키와 같은 모양으로 방송됩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고심 끝에 태극기가 왜곡되게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입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b>□ 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b></p> <p>- 6시 내고향 6,000 회를 맞이하여 귀한 토종 씨앗을 전시하고 나누어 주는 토종씨앗축제를 진행한다고 방송되었다. 첫날(4.14)은 오후 3시, 6시에 나누어 주고 둘째날(4.15)은 낮 12시, 오후 3시, 6시에 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첫날 씨앗을 받으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부가 완료되어 당황스러웠다.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1</b></p> <p>- 오전 7시부터 토종씨앗을 받기 위해 시청자들이 대기했고, 민원이 많아 오후 1시에 1차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미리 배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p><b>□ 2TV [추적 60분] 방송 제언</b></p> <p>- 엄연한 폭력범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SNS 현피'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문제제기에만 그치고 해결 방안 제시는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심리적, 교육적 측면 등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에는 고려해 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3</b></p> <p>- 'SNS 현피'는 갑자기 최근 들어 일어난 현상으로 알려져 한다는 취지로 방송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도 없고 전문가 섭외 역시 어려워 해결방안 제시가 쉽지 않았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진행자 발언 제언</p> <p>- 「생방송 아침이 좋다」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코너에서 노래방 10대 소녀 암매장에 대한 살인 사건을 다루었는데 자료화면이 끝난 후 이지연 아나운서가 웃으며 “최재황 경사의 늘어나는 연기력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해 보기 불편했다. 또, 긴급취재 코너에서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 5중 추돌사고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김지윤 아나운서가 방송말미에 “운전자는 평소처럼 즐음운전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라고 말해 놀랐다. 두 사건 모두 안타까운 사건을 다룬 만큼, 진행자는 상황에 맞는 진지한 태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4</p> <p>- &lt;사건의 재구성 - 실마리&gt; 관련</p> <p>먼저 부적절한 멘트로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발언이 아닌 진행자(최재황 경사) 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부주의한 표현이었습니다. 해당 아나운서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p> <p>- &lt;긴급 취재 - 버스는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까?&gt; 관련</p> <p>사고 운전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전달하고자 한 것이, 의도와 달리 마치 즐음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즐음운전이 실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하게 멘트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코 즐음운전을 옹호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해당 아나운서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b>□ 1TV [콘서트 7080] 출연자 섭외 제언</b></p> <p>-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의 인기곡을 원곡 가수를 통해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로그램의 본 취지와 달리 젊은층 위주의 가수들이 자주 출연하는 것 같다.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노래와 가수들을 보며 옛 추억을 회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p> <p><b>□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제언</b></p> <p>- 이휘재가 아이들 감각 발달에 좋은 촉각 놀이를 위해 밀가루 한 포대를 사용해 집안에 밀가루 놀이터를 만들었다. 보통 시청자들은 쌍둥이네와 같이 넓은 방이 없고 치우기가 힘들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 재료를 방송에서 놀이로 사용하는 게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소재 선택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9</b></p> <p>- 콘서트 7080은 7080시대의 주 시청자는 물론 폭넓은 연령층의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는 콘서트 708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9</b></p> <p>- 밀가루는 아이들 촉감놀이로 보육원, 유치원에서도 놀이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촉감놀이 소재로 방송에도 활용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드 라 마	<p><b>□ 2TV [동네 변호사 조들호] 극본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아동 학대와 불량 급식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및 비밀 등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고 선생을 하대했다는 내용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현실과는 무관한 가상의 스토리라고 해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드라마프로덕션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어린이협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고, 어느정도 방송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허구 내용이고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고지가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li> </ul>
라 디 오	<p><b>□ 2FM [황정민의 FM 대행진] 시청자 참여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곡과 사연 또는 퀴즈에 대한 답을 문자 참여와 KBS Kong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Kong 참여보다 문자참여가 더 많이 진행되어 그런지 문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첨되는 것 같다. 모든 시청자 참여는 Kong 과 문자참여가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당첨비율을 비슷하게 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R 프로덕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퀴즈신청, 퀴즈임파서블 시즌 3 의 경우 문자로만 참여 가능하고, 그 외에는 Kong 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선정의 경우 중복 당첨자를 구분하기 위해 문자참여자 위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 모바일 쿠폰 당첨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즉시 발송해 주기 때문에 문자 참여자에 한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ong 당첨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기 타	<p><b>□ [kong 어플] 애플리케이션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은 휴대전화 Ko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청취한다.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시보가 현재시각과 몇 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 시각 차이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1 라디오주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라디오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나 콩 어플로 듣는 경우 어플이다 보니 시보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작업할 예정입니다.</li> </ul>

## 8

#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 1

### KBS 방송강령

#### [ 전문 ]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 [ 총 강 ]

###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 [ 방송 강령 ]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국,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삭제 2008. 8. 1>

[ 별표2 ] <삭제 2008. 8. 1>

[ 별표3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일	월일	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문서번호 : 시청자서비스팀 - 179호 (2009. 1. 28.)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b>고충처리신청서</b>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피해사실	6 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p>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인)</p> <p><b>KBS 고충처리인 귀하</b></p>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시청자본부장
  - 위원: 감사실장, 편성마케팅국장, 방송주간, TV 프로덕션 1 담당, 네트워크시설국장, 법무실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 됨.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견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    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